

리아호나

모든 사람을
환영하며, 2쪽

문자 메시지의 노예가
되지 말라, 18쪽

즐냄기와 일지 쓰기, 친14쪽





우 리 모두는 원래 독신이었으며 현재 독신이거나 혹은 언젠가는 다시 독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독신으로 생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서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에베소서 2:19)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이들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모든 사람을 환영하며", 2쪽 참조.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입니다.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사도정위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리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베러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크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게리 제이 콜먼, 요시히코 기무찌, 제럴드 앤 렌드, 더블류 더글라스 생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호트

편집 책임자: 비타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크리스티 반즈, 린다 스튜어 쿠퍼,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라렌 포터 곤트, 캐리 카스텐,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제이 오데카르, 주디스 엠 팔라, 비비안 플슨, 리처드 엠 롬니, 제니퍼 로즈, 돈 엘 설, 재신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델, 김벌리 펄

선임 비서: 모니카 엘 디킨슨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엘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밴 캠펠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거 오온, 브리트리니 존스 빈,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베틀,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슨,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카비, 켈달 제이 파스톤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497호, 제44권, 제8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7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 윤 환

편집인: 박 송 호

번역 책임자: 박 환 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감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도/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과(☎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판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된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힌디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7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August 2007 Vol. 31 No. 8.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ag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모든 사람을 환영하며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 7 한 장의 팸플릿 **돈 엘 설**
- 12 기독교 교리의 근원 **토마스 비 그리피스**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성전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 26 결혼 생활을 강화하고 동등한 동반자가 됨 **브루스 시 하펜 장로, 마리 케이 하펜**
- 38 훌륭한 회원 선교사가 되는 방법 **알 발 존슨**
- 44 후기 성도의 소리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의 성전 결혼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게오바니 메디나**
나의 마지막 기회 **루이스 델라**
기도로 하나가 되어 **다니엘 오펜쇼**
- 48 애독자 편지



12 기독교 교리의 근원



7 한 장의 팸플릿

표지
사진 촬영: 매튜 라이어, 모델이 포즈를 취함
친구들 표지
삽화: 짐 매드슨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다음 제언은 반이나 가정에서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근원**”, 12쪽:

식물 그림을 보여 주거나 그린다. 뿌리 없는 식물이 죽지 않고 자라날 수 있을까? 식물의 뿌리와도 같은 우리의 간중에 우리는 어떻게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된 글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읽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본다. 다음 가정의 밤 때 그 결과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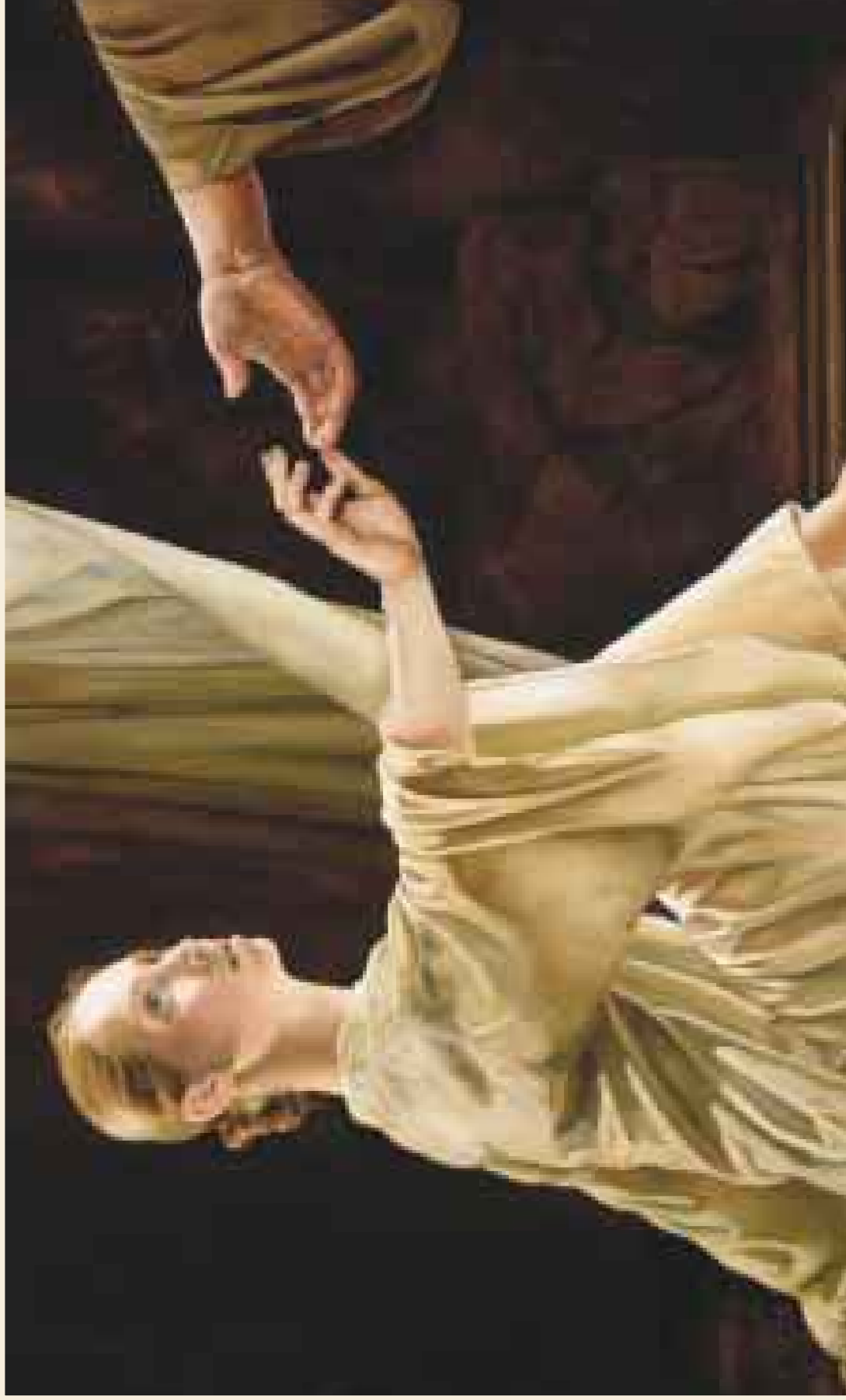


“**문자 메시지의 노예가 되지 말라**”, 18쪽: 공과를 시작하면서 오로지

글로벌 대화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해 본다. 글만으로

대화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논의해 본다. 이 기사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의 문제점들을 짚어 보고, 적절한 사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휴대전화 문자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도구로서 이용하는 방법을 계획한다.

“**훌륭한 회원 선교사가 되는 방법**”, 38쪽: 가족 구성원들을 지명하여 이



센티 프레스클린 가운,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때에 병들어 죽으매 ... 베드로가 ...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사도행전 9:36~37, 4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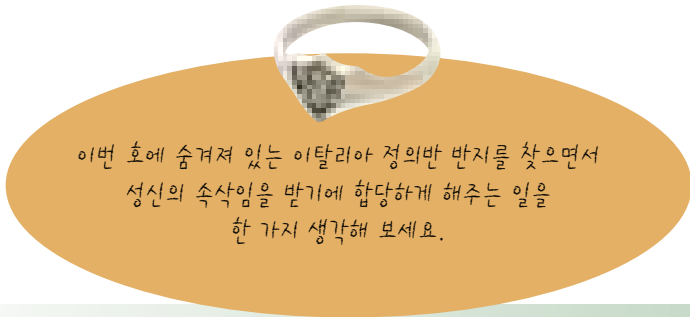
18 문자 메시지의 노예가 되지 말라



35 희망을 갖는 법을 배우다

청소년

- 17 올바른 메시지를 받고 있는가?
- 18 문자 메시지의 노예가 되지 말라 *리셀과 브래드 윌콕스*
- 22 약간의 폭력? *익명*
- 32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할 수 없는 일들에만 초점을 두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이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없는 날이 아닌, 기다려지는 날이 되게 할 수 있나요?"
- 35 희망을 갖는 법을 배우다 *마리아마 칼론*



이번 호에 숨겨져 있는 이탈리아 정의반 반지를 찾으면서
성신의 속삭임을 받기에 합당하게 해주는 일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기사의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한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의 명단을 만들어 본다. 그 글에 제시된 아이디어 중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해서 역할극을 해 본다. 가능한 날을 정해서 실천에 옮겨 본다.

“선지자 따라”, 친2쪽: 특별한 가정의 밤에 초대하는 작은 초대장을 만들어 모든 가족들에게 나누어 준다. 노래와 기도, 힝클리 회장의 말씀에 대한 공과로 가정의 밤을 꾸민다. 한

가족으로서 매주 의미 있는 가정의 밤을 통해 선지자를 따르겠다고 다짐한다.

“경고의 음성”, 친10쪽: 태드의 이야기를 소리 내서 읽으면서 태드가 무엇을 통해 잘못을 깨닫게 되었는지 가족들에게 물어 본다. 그와 비슷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의견을 모아 즉석에서 발표를 해 본다.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선지자 따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귀 기울임 *엘리자베스 리스*
- 친6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생애에서: 지도자가 된
- 친8 색칠하기
- 친9 특별한 증인: 성찬을 들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친10 경고의 음성 *테리 리드*
- 친13 심심풀이 : 경전 속의 영웅들 *애리 반 더 그래프*
- 친14 친구가 친구에게: 줄넘기와 일지 쓰기 —칠레 산티아고의 니콜 안투네즈 *아담 시 올슨*



친14 줄넘기와 일지 쓰기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성찬
가정 복음 교육, 6쪽	속죄, 12쪽
가정의 밤, 1쪽, 친2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친6, 친14쪽
가족, 2, 7, 26, 35쪽	시련, 35, 44쪽
개종, 7, 35쪽	안식일, 32쪽
결혼, 26, 44쪽	영구 교육 기금, 45쪽
기도, 46쪽	예수 그리스도, 12쪽
<i>나의 복음을 전파하라</i> , 38쪽	외실물, 친10쪽
독신, 2쪽	우정, 2쪽
매체에 나타나는 폭력, 22쪽	의사소통, 17, 18쪽
문자 메시지	인도주의적 지원, 35쪽
믿음, 44쪽	일지, 친14쪽
방문 교육, 25쪽	지도력, 친6쪽
봉사, 2쪽	<i>청소년의 힘을 위하여</i> , 22쪽
사랑, 26쪽	초등학교, 친4쪽
상호부조회, 25쪽	화합, 46쪽
성신, 22쪽, 친4, 친8, 친10	회원 선교사, 7, 38쪽
성전 성약, 25, 44쪽	희망, 35쪽



모든 사람을 환영하며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이 글을 통해서 저는 결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회원들에게 발전하고 행복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여러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성공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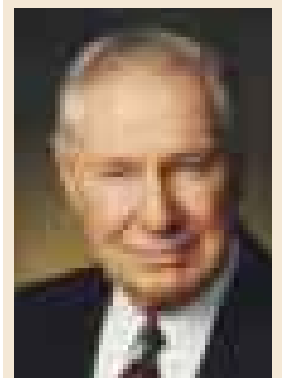
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고 경전을 연구하며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우리가 자신의 삶에 그분을 초대한다면 인도와 지지를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결정을 내리십시오. 자신의 가치를 주님의 관점에서 판단하십시오. 낙담할 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분께서 도움을 청하는 우리의 외침을 듣고 계신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 통찰력 있게 가르친 선지자 지노스는 “또 나의 고난과 나의 성실함으로 인하여 나를 들으셨사오며” (앨마서33:11)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독신 형제 자매들이 호소하는 한 가지 공통적인 고민거리를 들을 때 우리는 참으로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외로움을 느끼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훌륭한 감독과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가 있고 또한 좋은 직장을 가지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한 교회 회원이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눌 누군가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 교회에 속한 성인들 중 삼분의 일 이상이 독신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서는 일부 독신 회원들이 느끼는 이러한 외로움의 고통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고독을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최고의 처방전은 타인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는 않지만 여러분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을 주저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돕고 격려하십시오. 약간의 관심과 격려조차 받지 못해 학교에서 낙오하는 소년 소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너무나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가 그분들께 희망과 기쁨을 조금이나마 안겨드릴 것입니다.”¹

우리 모두는 원래 독신이었으며 현재 독신이거나 혹은 언젠가는 다시 독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독신으로 생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결혼 역시 어려움과 책임을 동반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한 젊은 신부의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하면 이제 모든 걱정은 끝이야.” 그때 그녀의 현명한 어머니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런데 끝은



여 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약점뿐만 아니라 강점과 재능을 잘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지상에 보내셔서 인성을 닦고 발전시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심화: 그레그 쉘톤; 사진: 윌리엄 부시스 포토그래피

또 다른 시작을 뜻하지 않니?”

우리의 발전을 가능하며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독신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축복과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결혼하고자 하는 소망은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그 진전의 정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측정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시간과 능력을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여 달성가능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미혼인지 기혼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독신 회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해롤드 비리 회장님(1899~1973)께서 하신 다음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충실하고 용감하며 그에 따라 생활하고자 애쓸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 왕국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이웃에게

해롤드 비리 회장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삶의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봉사하는 고귀한 교회 회원도 있을 것입니다.”² 우리는 너무나 자주 아무 생각 없이 경솔하게 훌륭한 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실수를 범합니다. 교회 신권 지도자 중 한 분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어떤 훌륭한 독신 자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매님은 시집 안 가세요?” 물론 그 자매님은 동반자와 함께하는 좀 더 의미있는 삶을 써저리게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 물음에 자매님은 다음과 같이 재치있게 답하셨습니다. “형제님, 저도 물론 너무나 가고 싶죠. 하지만 결혼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더군요.”

많은 독신 성인들이 그들의 삶에 닥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와 교회 회원들의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정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강조하는 것이 올바르고 적절하지만 때로는 이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독신 회원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교회의 많은 회원들은 이혼한 자매들을 마치 나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바라봅니다. 저는 몇 년간 솔트레이크에 있는 한 와드에 참석했었는데 거기에서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무렵에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들을 위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도 초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선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이라면 분명히 저를 초대하셨을 텐데 말입니다. 사별과 이혼을 모두 겪어 본 몇몇 지인들은 이혼이 사별보다 훨씬 힘들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가족과 자녀들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괴짜 취급을 받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받아들여질 때 얼마나 기쁘지 몰라요.” 독신이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에베소서 2:19)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이들이 교회에서 소속감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속해 있습니다.

독신 성인 회원들이 속해 있는 모든 모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가족은 중요 관심사가 되곤 합니다. 몇 해 전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이신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교회의 독신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에 대해 많이





이야기 합니다. 가끔씩 여러분은 속상해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다들 가족에 대한 얘기만 하네. 그런데 난 왜 가족이 없을까 ... 그만하세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가족에 대해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여러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족에 관하여, 즉 아버지, 어머니, 자녀, 그리고 가정의 밤, 성전 결혼,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언젠가는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도 손해를 볼 것입니다."³ 저는 이 말에 공감하며 여러분께 되풀이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축복이 실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여러분 모두는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떠난 선한 목자의 비유(누가복음 15:3~6)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독신 회원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다가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독신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방법은 그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에서 독신 형제 혹은 자매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앉거나 여러분과 함께 앉자고 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들께 우정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또한 핑클리 회장님께서 개종자들을 위해 주신 다음과 같은 충고를 독신 회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교회에서 봉사할 부름과 친구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라는 항목을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부지런한 가정 복음 교사는 가정 복음 교육 메시지로 독신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채워줄 것입니다. 또한 그분들과 우정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고, 특히 독신 자매들에게는 신권 축복을 받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독신들을 바라볼 때 독신이라는 걸만 보고 그 내면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신들 역시 평범한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대해

교 회 지도자들에게 드리는 지침:
 “독신들은 노변의 모임, 무도회, 합창 연습, 신권 준비 세미나, 성전 준비 세미나, 성전 방문, 문화 행사와 스포츠 모임과 같은 스테이크 및 워드 활동에 초대되어야 합니다.”

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원해서 독신이 된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시편 작가가 말했듯이 우리도 “고아의 아버지”가 되며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시편 68:5~6)라고 한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그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거처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안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드립니다. “감독단이나 지부 회장단은 자녀가 없거나 부모와 따로 사는 독신 회원들로 구성된 가정의 밤 그룹을 하나 이상 구성할 수 있습니다.”⁴ 또한 “독신들은 노년의 모임, 무도회, 합창 연습, 신권 준비 세미나, 성전 준비 세미나, 성전 방문, 문화 행사와 스포츠 모임과 같은 스테이크 및 워드 활동에 초대되어야 합니다.”⁵

교회 지도자들은 역원 모임에서 독신 회원들의 필요 사항에 대해 상고해야 하고 독신들에게 의미 있는 부름과 임무를 주며 활동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독신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공과 주제가 결혼이나 자녀에 관한 것일 때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독신 회원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행복해지십시오

독신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즐겨야 할 행복의 기회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해롤드 비 리 회장님(1899~1973)께서 하신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삶의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⁶

많은 독신 회원들이 가족이나 이웃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이들은 조카, 형제 자매, 그리고 친척들을 지지하고 받아들이며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신들도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부모들과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그들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신 회원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주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약점뿐만 아니라 강점과 재능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지상에 보내셔서 인성을 닦고 발전시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약속된 동반자를 보내주시므로써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

주

1. 독신 성인들에게 주는 권고, 성도의 벗, 1997년 11월호, 17쪽.
2. *Strengthening the Home* (팸플릿, 1973), 8쪽.
3. Melchizedek Priesthood MIA Conference, 1973년 6월; 제임스 이 파우스트, “Happiness Is Having a Father Who Cares,” *Ensign*, 1974년 1월호, 23쪽 인용.
4. *교회 지침서, 제1권: 스테이크 회장단 및 감독단* (2006), 126쪽.
5. *교회 지침서, 제1권*, 126쪽.
6. “A Sure Trumpet Sound: Quotations from President Lee”, *Ensign*, 1974년 2월호, 78쪽.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여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파우스트 회장님의 말씀에 대해 토론한다. 가족에게 독신 회원 혹은 비회원을 방문하자고 권유한다. 방문받은 사람이 더 환영받고 자신이 정말 가치있는 존재라고 느끼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가족의 생각을 묻는다. 그들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한다.
2. 토론이나 게임으로 공과를 시작한다. 활동을 하는 동안 한 사람을 몇 분 동안 나가 있게 한다. 다시 그 사람을 불러들이고 다른 사람을 내보낸다. 모든 사람에게 순서가 돌아가도록 한 후에 혼자 있었을 때의 기분에 대해 토론한다. “우리 모두는 원래 독신이었으며 현재 독신이거나 혹은 언젠가는 다시 독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3. 자 혹은 줄자를 준비한다. “우리의 발전을 가능하며” 부분에 나온 가르침을 나누면서 줄자를 보여준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간증을 전한다.

한 장의 팸플릿

한국에 사는 한 우체국 직원이 드디어 자신이 찾고 있던 답을 찾았다.
그러나 과연 가족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까?

돈 열 설
교회 잡지

19 69년의 어느 여름날에 한국
춘천시에서 봉사하던 한
선교사가 해외 우편을
담당하는 우체국 직원에게
인생의 목적에 관한
팸플릿을 건네 주었다.
이 젊은 장로는



아마 이 작은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의 개종으로
이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팸플릿을 건네 받은 이 우체국 직원
역시 그 사실을 알았을 리 없다. 한반도 남쪽
끝자락의 순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조중현 형제는
자신이 왜 머나먼 춘천까지 발령을 받아 오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는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정확히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팸플릿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하나의 작은 사건으로 그의 가족 전원이 개종하였으며,
그것은 그 외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개종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저희 가족
전원이 모두 침례를 받기까지는 20년이 넘는 긴 세월이



위: 가족 구성원 중 처음으로 교회에 가입한 조중현 형제와 아내 이현아 자매. 조 형제는 현재 고향 순천에서 지부 회장을 맡고 있다. 맞은편: 1990년 초에 조중현 가족의 배우자들 및 자녀들과 함께 촬영한 가족 사진.

걸렸습니다.”라고 조 형제는 말한다. 그의 노력으로 부모와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조중현 형제가 개종한 것 역시 쉽지 않았다. 선교사에게서 받은 팸플릿에서 그는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인생의 목적에 관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표현에 의하면 “아주 좋았”기는 했지만 이름도 생소한 미국 교회가 그다지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았다. 서랍 안에 내팽개쳐진 팸플릿은 결국 곧 잊혀지고 말았다.

팸플릿에 관하여 까맣게 잊고 있었던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다. 전날 저녁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당구를 치며 시간을 보낸 그는 잠에서 깨어 자리에 누운 채 자신의 인생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순간 그는 많은 해답을 제시해 주었던 바로 그 팸플릿을 떠올렸다.

후기 성도 예배 모임에 처음 참석했을 때 그는 별로 큰 인상을 받지 못했다. 교회가 입주해 있었던 전세 건물은 초라했고, 주일 학교에 참석한 회중이라고는 선교사들과 선교사들 밥을 해주시던 아주머니와 할머니 한 분과 두 어린이, 그리고 두어 명의 대학생이 전부였다.

그러나 팸플릿이 말해 주었던 해답들과 더불어 젊은 선교사들의 겸손한 태도와 간증에 마음이 끌렸던 조 형제는 교회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한 채 선교사들과의 조심스런 만남을 계속하였다. 선교사들과 종교에 관하여 논쟁하곤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선교사들이 물문경에서 경전 구절을 인용할 때마다 그는 “이 친구들 참 허풍이 보통이 아닌 걸? 꼭 성경 말씀 같잖아”라고 생각하곤 했다. 선교사들은 물문경 앞장에 “모로나이서 10:3~5”을 써서 조 형제에게 주었다. 선교사들이 써 준 문구에는 그 책을 읽는 이가 성신을 통하여 그 책이 참됨을 알게 되리라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조중현 형제는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산에 올라가

자신이 가장 즐겨 찾는 장소에서 홀로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즉시 오지는 않았다.



“이들은 참되니”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 앉아서 물문경과 교리와 성약을 읽고 있었던 조 형제는 자신에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다. “이들은 참되니 곧 이들은 나의 것이니라.” 조 형제는 다른 사람들도 그 음성을 들었을까 의아해 하며 주위를 둘러 보았으나 그는 곧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1969년에 침례와 확인을 받은 조중현 형제는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되었다. 예전에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나 사물들도 더 이상 미워 보이지 않았다. 세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가 바라본 세상은 한없이 아름다웠다. 그는 시간을 내어 선교사들과 함께 가가호호를 하며 간증을 전하였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군복무를 하느라고 잠시 선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지만 1970년대 중반 고향 순천에 돌아온 조 형제는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순천시에는 그 당시 교회 회원이 한 명도 없었다. 이를 바꾸기 위해 조중현 형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문경을 나누어 주었다. “이 참되기도 소중한 책을 꼭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며 그는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나 성공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선교사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들은 다름아닌 그의 친 형제자매들이었다.

조 형제의 막내 누이동생이었던 조성자 자매는 오빠가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가정의 밤을 열더니

형제들과 누이들에게 복음의 원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노라고 그 당시의 일을 회고했다. 조 형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형제자매들을 선교사들에게 소개했다.

그 중 막내 여동생은 복음을 매우 기꺼이 받아들였다. 조성자 자매는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이 진실되다는 증거를 성신의 느낌을 통해 받은 것이다. 다른 교회에 속한 몇몇 주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경전 구절을 보여 주며 성경에 다른 말씀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계 22:18~19 참조) 경고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물론경을 펼쳐 니파이후서 29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 그 장에 나와 있는 구절들은 추가적인 계시가 필요하다는 내용(11~14절 참조)을 담고 있었으며 성신은 다시금 그 말씀이 참됨을 증거했다.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했던 그녀의 아버지는 끝내 승낙했고, 그녀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1976년, 열여섯 살

소녀였던 조 자매는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믿음직한 인도자

복음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오빠 조중현 형제와 마찬가지로 조성자 자매 역시 자신이 찾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녀는 학교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결국 그 중 다섯 명이 침례와 확인을 받게 되었다.

조성자 자매의 셋째 오빠인 조용현 형제는 예전에 오누이들과 함께 선교사 토론을 들은 바 있었다. 부모님이 직접 운영하셨던 음식점 일로 바쁘셨기 때문에 동생들을 돌보는 것은 종종 둘째 아들 중현의 몫이었다. 그의 동생들은 점차 그를 사랑하고 그의 판단력을 믿게 되었다. “저는 저희 형님을 참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제게 복음을 소개해 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위: 가족 구성원 중 오빠에 이어 두 번째로 교회에 들어온 조정자 자매. 맞은편: 세 번째로 교회에 가입한 조용현 형제와 아내 이은숙 자매, 그리고 장녀인 헤인(바닥에 앉음), 남편인 신희필 형제와 함께한 조길자 자매.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조용현 형제는 말한다.

그러나 조용현 형제의 개종이 단순히 형의 간증 때문에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그 역시 진리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확실한 간증을 갖고 있었으며 회원이 된 후에도 충실히 봉사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이러한 헌신적인 삶 속에서 그는 대학생 시절에 선교 사업을 결심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반대가 있었지만 조용현 형제는 귀환 후에 더욱 성실한 학생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허락을 받았다. 그는 물론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 조용현 형제가 교회 교육 기구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자 부자 관계에 또 하나의 갈등이 빚어졌다. 그 당시 정유 회사에서 순탄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조 형제가 1986년부터 광주 지역의 교회 교육 기구 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된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름난 기업의 좋은 직책을 마다하고 별로 들어보지도 못한 미국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결정이라 여기며 아들의 전직을 반대하였다. 아버지는 아들 용현의 결정에 상심하여 눈물을 흘리며 부자간 인연을 끊을 생각까지 했었노라고 훗날 털어 놓았다. 그러나 다행히 부자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조 형제의 형제들과 누이들은 복음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주었던 이가 다름아닌 그들의 아버지였다고 모두 입을 모아 말한다. 다소 강압적이었던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부장으로서 가족들의 순종을 요구하였다.

봉사가 바로 답이었다

형제자매들 중 일부는 교회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도 하였다. 둘째 딸이었던 조길자 자매는 오빠가 다른 교회의 목사들과는 달리 돈도 한 푼 받지 않고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하는 모습을 특히 못마땅해 했다. 결혼 후 자녀들을 낳아 기르게 된 후에야 비로소 조 자매는 오빠의 간청에 따라 선교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선교사들이 몰몬경을 읽어 보기를 권하자 조 자매는 경전 읽기에 심취하여 단 사흘 만에 몰몬경을 독파하였다. 그녀는 모로나이의 권고에 따라 몰몬경의 가르침에 관하여 기도해 보았고 그것이 참되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이때 그녀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았다.”고 느꼈다. 이러한 소망에 대한 응답으로 그녀는 자신도 역시 교회에 참석하여 봉사를 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다.

조길자 자매는 이미 훌륭한 모범을 통해 봉사하는 방법을 익혔다. 그녀의 어머니는 교회에 가입하기 이전에도 교회 회원들을 위한 봉사를 하며 언제나 봉사의 가르침을 실천해 오셨다.

그녀의 어머니는 교회 회원들과 자신에게 가르침을 준 자매 선교사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를 망설이게 했던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종교적 믿음이었다. 그녀는 옷장 안에 불상을 모셔 놓고 매일 부처에게 기도를 드렸다. 그녀가 개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그녀가 꾸 꿈 때문이었다. 꿈 속에서 그녀가 여느 때처럼 불상에 기도를 했는데 불상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니 그녀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었다. 이 꿈을 꾸고서 그녀는 새로운 종교를 가져야 할 때라고 깨닫게 되었다.

그녀가 침례와 확인을 받고 삼 년이 지난 후 가족 중 유일하게 교회의 회원이 아니었던 그녀의 남편이 마침내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개종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의 자녀들에 따르면 그는 교회 회원이 되고 나서 더 부드럽고 자상하고 온화한 아버지가 되었다고 한다.

가족의 화합

그리하여 조중현 형제가 침례를 받은 지 26여 년만에 마침내 그의 가족들 전원이 교회 회원이 되었다. 이 가족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은 두 부모님이 서울 성전에서 인봉을 받으셨을 때였다. 얼마 후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자녀들은

아버지를 위해 어릴 적에 아버지가 불러주셨던 자장가를 불러 드렸는데 이로 인해, 온 가족이 감동을 받았다.

그들의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교회에서 충실하게 봉사하였다. 그녀는 병원에서 위암으로 고통 받는 순간에도 선교사가 되어 옆 침상의 소녀에게 복음을 소개하였다.

그녀의 아들과 딸들은 봉사의 모범을 이어갔다. 가족 중에는 두 명의 “조 회장님”이 있다. 광주 지역 교회 교육 기구 코디네이터인 조용현 형제는 수년 동안 여러 신권 지도자의 부름에서 봉사했고 현재는 광주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가족들에게 처음 복음을 소개한 조중현 형제 역시 순천에서 지방부 회장을 비롯해 여러 지도자 직분에서 봉사하였다. 지금은 순천 지부 회장의 부름을 수행하고 있다. 조길자 자매는 16년 이상을 와드와 스테이크의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들의 다른 형제 자매들 역시 각자의 지역에서 활동적인 회원이며 모두 활동 회원과 결혼하였다.

지금까지 조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 중 일곱 명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고, 또 몇몇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조씨 가족의 여러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귀환 선교사와 결혼했다. 이제 조씨 가족의 네 번째 세대가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 그들이 살아온 삶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순종하여 많은 축복들을 받았다.

젊은 우체국 직원에게 거의 40년 전에 팸플릿을 건네준 선교사는 그가 심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크게 자라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수확은 차고 넘쳤으며 어쩌면 이것도 아직 시작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



기독교 교리의 근원

토마스 비 그리피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굳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이신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자비에 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기독교 교리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많은 것이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뿌리와 연결되지 않은 가지들만

알고 있다면, 즉 진리가 결여된 복음 안에는 생명도, 실체도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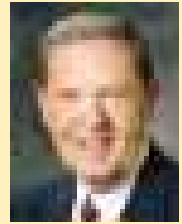
저는 우리 자신과 그 뿌리가 서로 연결되도록 하고 우리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굳게 자리잡도록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분의 고난의 상징물을 취함

성전추천서를 위한 접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간증과 구주요, 구속주인 그분의 역할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기쁘게도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든 분들이 그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저는 우리들이 그

질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염려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의 여러 역할 중 구주와 구속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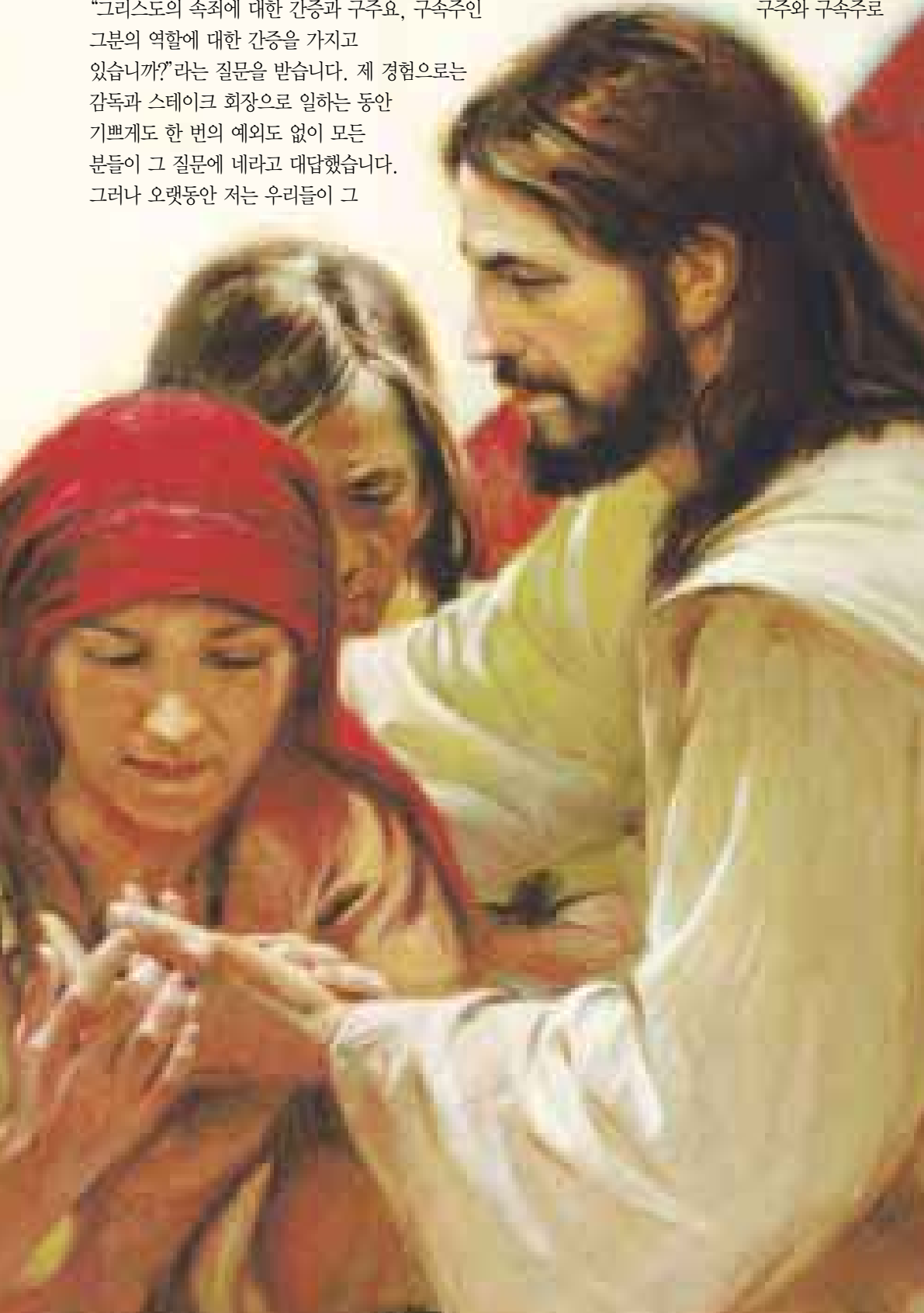


그분을 항상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이끄시는 이는 상처를 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희생의 상처, 사랑, 겸손과 용서의 상흔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젊은이와 노인들에게 앞으로 나아가 그 못자국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도록 하십니다. (제3니파이 11:15, 18:25) 우리는 이사야와 함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가 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사야 53:3) 어린 제사 신권 소유자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기도를 드릴 때 이 모든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십이사도 정원희,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69쪽.



성

찬식의 빵과
물은 중요한
상징물로서
이것을 취하면서 우리는
구주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며 경건하게 됩니다.

인정하느냐라는 질문만 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속하게 되는 성전은 그분께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곳임이 분명합니다.

스��이크 회장으로 봉사했을 때 저는 스테이크의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과 구주요, 구속주인 그분의 역할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지 염려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그들의 구주(그들을 구원한 자) 또는 그들의 구속주(그들을 속죄한 자)로는 알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저는 제3니파이 11장을 읽다가 전에 몰랐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1장에 등장하는 백성은 의로운 잔류민이며 선지자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분은 “손을 내미시며”, 그분의 희생의 상징이며 증거인 상처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일러 이르시되,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라.”(제3니파이 11:9~10)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 쓴 잔을 마시고 세상의 죄를 짊어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노니, 이로 말미암아 태초로부터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을 담당하였느니라.”(제3니파이 11:11)

그것이 그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은 선지자들이 간증한 기름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무리가 다 땅에 엎드렸더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천 후에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시리라고 그들 중에 예언되었음을 그들이 기억하였음이라.”(제3니파이 11:12)

그 다음 부분은 제가 가장 성스럽다고 느끼는 경험이 나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한 사람씩 앞으로 나아와 하기 어려운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일어나 내게로 나아와서 너희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또 내 손과 내 발의 못 자국을 만져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하나님이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음을 알지어다.”(제3니파이 11:14)

이 백성들은 그분의 고난의 상징을 실제로 만져보았습니다. “무리가 나아갔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았느니라. 또



그의 손과 그의 발의 못 자국을 만져보았으니, 그들이 이를 행하되 하나씩 나아가 이윽고 그들이 모두 나아가가기까지 그리하였느니라.”(제3니파이 11:15) 2,500명이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두 나아가 스스로 목격한 후에 그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도다! 하고 그들이 예수의 발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였느니라.”(제3니파이 11:16~17)

이 백성들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땅에 엎드렸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경외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엎드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엎드렸습니다. 두 경우의 반응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그들이 한 목소리로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그 의미는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입니다. 왜 이 백성들이 그리스도께 그들을 지금 구원해 달라고 외쳤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백성이었지만 그 전까지는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그분을 자신들의 구주로 알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따라야 할 모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그분을 구주로서 알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는 당신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오늘 우리를 방문하셔서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므로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호산나!” 또는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현재형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니파이 백성들이 그분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단지 의롭고 순종하는 백성에서 의롭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는 백성으로 변화시켰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고난의 상징들을 직접 만져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테이크 회원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이며 구속주임을 알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의 상징을 직접 만져보는 일과 같은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때에 저는 우리가 매주 일요일 성찬을 들 때 바로 그 경험을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죽임을 당하신 그분의 몸의 상징물인 빵을 먹고 그분이 흘리신 피의 상징물인 물을 마십니다. 이 상징물을 취하면서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며

경건하게 됩니다.

저는 주의 만찬인 성찬을 취할 때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리스도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그분을 경배하고자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의 희생을 깊이 생각함

복음이 우리 마음과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굳게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구성하는 사건들을 자세히, 통찰력과 느낌으로 알아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19편에서 주님은 그분이 감당했던 고난에 대해 직접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내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 하게 하였느니라”(16, 18절)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이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분께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기에 충분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어느 작품에 대해 열린 토론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그림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나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에 대해 역지로 생각하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고난이 어느 정도였는지 전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고난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로나이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모로나이 10:30, 32)는 권고와 함께 물문경의 기록을 끝맺으면서 부친의 편지를 우리와 나눕니다. 모로나이는 그 편지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우리 역시 그러한 영향을 받았으면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하라. 그리고 내가 쓴 것이 너를 비통하게 하여 너를 억눌러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기를 바라며, 또 그리스도께서 너를 들어 올리시기를 바라며, 또 그의 고난과 죽음과 우리 조상들에게 그의 몸을 보이신 일과 그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음과 그의 영광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네 마음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노라.”(모로나이 9:25)

우리 마음에 영원히 간직해야 할 것들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분께서 치르신 값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상기시키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죄값 인해 못 박혀 피 흘리셨으니
그 자비 사랑 현신 내 어찌 잊으리²

피 흘리사 죽으신 주
잊지 않게 합소서³

너의 주 생각하라
대속 받은 자들이
너의 주 생각하라
고통 중에 흘린 땀
비와 같이 흘린 피
달려 못 박히신 주
대속하여 주셨네.⁴

최근 성찬식에서 한 연사가 익숙한 경전 구절을 읽는데, 저도 눈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라.”(교리와 성약 18:10) 그런 후 다음 구절에서 제가 전에 한번도 인식하지 못했던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영혼의 큰 가치를 증명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보라, 주 너희 구속주가 육체로 죽음을 겪었음이라. 그런즉 그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오게 하려고 모든 사람의 고통을 겪었느니라.”(교리와 성약 18:11)

그분의 고난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여 그분께 나아오게”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특히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일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그분께 순종하여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표하고자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장 간결하고 심오한 설명으로 우리 마음에 복음이 굳게 자리하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설득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특히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일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분을 기억함

수년 전 저는 칠십인 정원회의 제럴드 엔 린드 장로님이 암벽등반에 관한 잡지 기사에 대해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기사는 확보(역주: 등반자가 떨어질 때 로프를 잡아주기 위해 대비하는 것)라는 안전 조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등반자 한 명이 안전한 위치에 이르러 로프를 고정된 위치에 조이고 나면 동료에게 “확보 되었습니다!”라고 외치는데, 그것은 “내가 당신의 밧줄을 안전하게 조치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암벽등반 학교의 교관인 앨런 첸쿠시는 그 기사를 쓴 사람과 함께 경험했던 확보 작업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확보 작업으로 인해 첸쿠시는 등반 중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을 모두 경험했다. 언젠가 그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인공 확보물 세 개가 뿔뿔히 나갔고 그의 확보자(역주: 등반자를 확보해 주는 사람)가 밑으로 끌려 내려갔다. 그의 동료가 팔을 한껏 벌려서 힘을 다해 그의 추락을 중지시켰을 때 그는 지상에서 3미터 높이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첸쿠시는 ‘던이 내 목숨을 구했지요. 그렇게 해 준 친구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크리스마스에 내가 쓰던 로프라도 선물할까요? 아니죠.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를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⁵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어느 회원도 우리의 구속주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의 목숨을 버리시며 치르신 엄청난 대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깃세마네 동산에서의 고통, 모욕적인 재판, 그분의 살을 찢은 잔인한 가시관, 빌라도 앞에서 그분의 처형을 요구하던 무리들의 함성, 외로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길, 그분의 손과 발을 관통한 거대한 못들로 생긴 고통을 ...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각자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⁶

우리가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속죄하기 위해 치르신 대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06년 3월 14일 브리검 영 대학교 노변의 모임에서 한 말씀.

주

1. “중재자”,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56쪽.
2.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
3. “겸손하게 기도하오니”, 찬송가, 113장.
4. “Reverently and Meekly Now”, 영문 찬송가, 185장.
5. Eric G. Anderson, “The Vertical Wilderness”, *Private Practice*, 1971년 11월, 21.
6. “우리 신앙의 상징”, 리야호나, 2005년 4월호, 4쪽.

올바른

메시지를 받고 있는가?

영도 역시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교리와 성약 11:13 참조)

안녕하세요 ...

안녕!

문자
메시지의
노예가
되지 말라



리셀과 브래드 윌콕스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신나요.” 외출을 준비하던 한 소녀가 재차 부모에게 말한다. 그녀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다가 최근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렸다. 둘이 서로 만났을 때 그들은 아주 행복했다. 그들은 서로 껴안고 웃으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얼마 후,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일찍 집에 돌아와 부모를 놀라게 했다.

“뭐가 잘못되었니?” 그들이 물었다.

“전처럼 함께 이야기할 기대에 차 있었는데 그 친구는 같이 있는 내내 다른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문자 기능이 아예 발명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하는 딸은 분명 마음이 상하고 실망해 있었다.

모든 의사소통 도구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 기능은 사용하기에 따라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다. 생일 축하 문자 때문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재빨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일학교 시간이나 세미나리 시간에 문자를 보내는 청소년들이나 문자 메시지의 내용 때문에 마음을 다치거나, 위의 예처럼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느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메일과 마찬가지로 문자 메시지는 의사소통이나 인간 관계 형성에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 문자 메시지 기능을 적절히 사용하면 결과는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우려스러운 유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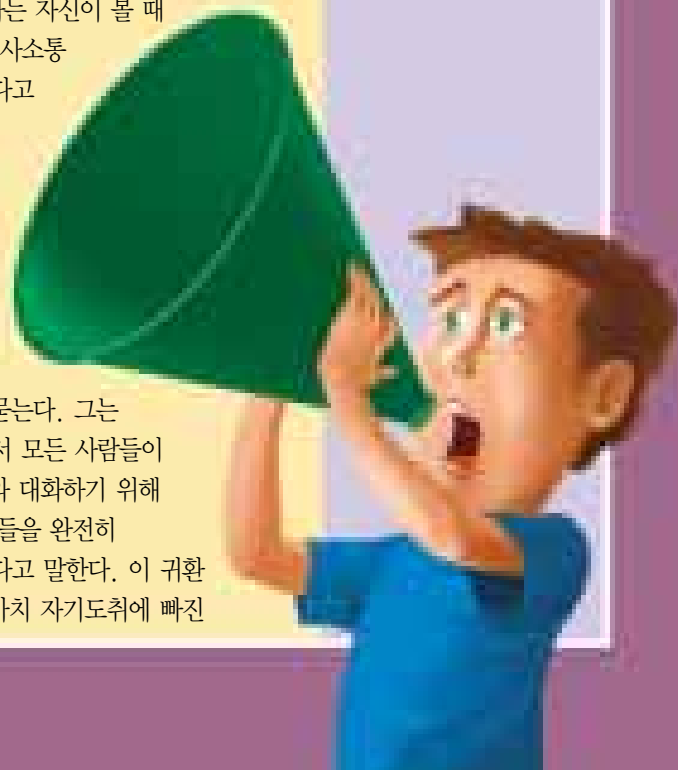
우리는 최근에 귀환한 몇 명의 선교사들에게 문자 메시지에 대해 물었다. 선교 사업 기간 동안

문자 메시지가 없는 환경에서 생활했던 이들은 귀환하고 나서 느꼈던 이 우려스러운 유행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어떻게 문자 보내기가 안전하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의사소통 능력을 감퇴시키며 무심하고 무감각한 활동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했다.

“문자를 보내는 동안은 자기 주위에 보호막이 생긴다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껴서 생각 없는 제안이나 모욕적인 답장을 보내기가 쉬워요.”라고 그 중 한 명이 말한다. 그러한 감정이 항상 건전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 안전한 자신의 차 안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다. 상대방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하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들을 거리낌 없이 하게 된다. 여러분은 자신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쓴 에세이나 단편소설에 대해 교사가 써 준 잔인할 정도의 혹평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는 고무적이지 못한 피드백을 줘도 무방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 교사가 여러분과 일대일로 대화를 하고 있다면 피드백은 그보다 훨씬 완곡하고 다듬어진 표현이었을 것이다.

또 다른 귀환 선교사는 자신이 볼 때 문자 메시지는 좋은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몇 분 이상 대화를 지속하는 법을 언제 배울 수 있을까요? 상대의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들을 파악하는 방법을 언제 배울 수 있습니까?”라고 그는 묻는다. 그는 대학 캠퍼스나 공항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는 누구와 대화하기 위해 “바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이 우습다고 말한다. 이 귀환 선교사는 또 “그것은 마치 자기도취에 빠진

문자 메시지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말

을 절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 기회를

활용하라. 당신이 직접 다가갈 때에 우정은 깊어지고 이해는 두터워질 것이다.

인기 스타가 영화나 CD 속의 관객과 의사소통 하는 데 열중하여 다른 출연진이나 스태프들이나 팬들을 무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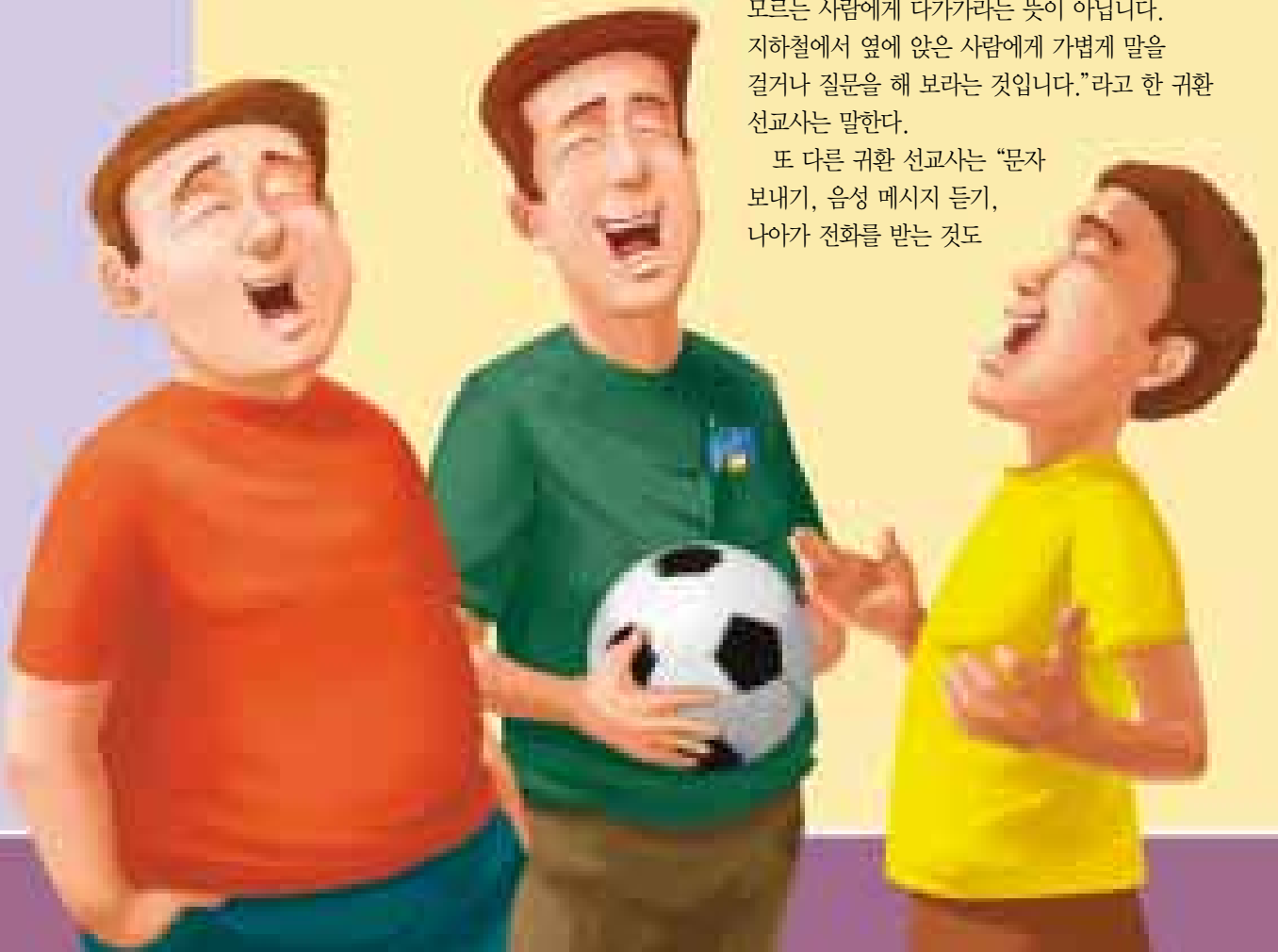
“아마도 문자 보내기의 가장 큰 폐단은 사람들을 서로 동떨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는 은행계좌와 같아서 예금을 하지 않으면 이자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어울리려는 노력이 부족하면 그만큼 돌아오는 것도 적습니다. 구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마음을 닫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구도자가 메시지를 거절했을 때 마음이 별로 아프지 않겠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투자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다른 귀환 선교사는 말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서로와의 관계에서 문자 메시지는 감정을 없애버리기 쉽다.

주도권을 줌

어떻게 문자 메시지의 단점을 피하며 그것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을까? 이 귀환 선교사들은 몇 가지 좋은 제안을 했다. 바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문자 보내기를 피하고, 전자기기를 통한 의사소통과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하는 의사소통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며 다양한 종류의 오락을 찾는 것이다.

“사람들과 대화하십시오. 모르는 사람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고향이 어디세요? 또는 ‘여기에 오래 사셨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신임 선교사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당신의 머리를 손질해 주는 사람이나 슈퍼마켓에서 나란히 줄을 서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사람에게 가볍게 말을 걸거나 질문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라고 한 귀환 선교사는 말한다.

또 다른 귀환 선교사는 “문자 보내기, 음성 메시지 듣기, 나아가 전화를 받는 것도





메시지를 받음

미룰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기보다는 혼자 있을 때 하십시오. 제 선교 회장님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계셨지만 항상 진동으로 해 놓으셨고 대회 중이나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문자 보내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하나의 오락이다. “문자 메시지가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것은 참 애석한 일이지요. 나중에 자녀들에게 젊었을 적 취미가 뭐였다고 말해 줄 수 있겠어요?”라고 귀환한 한 자매 선교사가 말했다. 여러분의 모든 오락거리는 비디오, 컴퓨터 게임, 문자 보내기라고 말하고 싶은가? 이 자매 선교사는 “창의적인 데이트, 게임, 아니면 그저 함께 둘러앉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배가 아플 정도로 웃어보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덧붙였다.

러셀의 경험

선교 사업을 마친 러셀은 휴대전화를 사서 기뻐했다. 그 전에도 휴대전화를 썼지만 게임이나 카메라, 문자 메시지 기능은 없었다. 귀환 후 첫 주말에 그의 이웃이 자기집 뜰에서 바자회 여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이 마당에 진열한 다양한 물건들을 구경하는 동안 그는 새 전화기를 꺼내서 만지작거리다 친구에게 자신이 선교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문자를 보내려 했다. 갑자기 그는 한 여자가 몇 가지 물건을 보면서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고 전화기를 내려 놓고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곧 그는 스페인어를 쓰는 그녀가 이 지역에 새로 왔으며 영어는 거의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페인에서 봉사했던 그는 스페인어로 말을 걸었고 그녀는 기뻐했다. 잠시 후, 그는 그녀가 몇 가지 물건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소개하기 위해 그녀의 이름과 주소도 받았다.

“친구에게 선교부가 정말 그렇다는 문자를 보내던 중이었는데, 그 때문에 선교 사업의 기회를 거의 놓칠 뻔 했습니다. 전화기를 손에서 놓자 선교사들에게 소개할 구도자를 찾게 되었어요. 새 전화기를 갖게 된 것이 좋았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선교사들에게 구도자를 찾아주는 것만큼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러셀은 말했다.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도 되는 적절한 장소나 때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단지 문자가 우리를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문자 메시지는 선행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스카이라인 고등학교에 다니는 세미나리반 학생 세 명은 문자 메시지로 할 수 있는 좋은 일 세 가지를 이렇게 제안했다.

- 밋치는 그가 한 일에 대한 감사 문자를 받고 기분이 좋아졌다. 간단하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다.

- 메리 마르타의 주일학교 교사는 문자를 보내 회원들에게 교회 활동을 상기시켜 준다.

- 브리저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세미나리에 오지 못했다. 여러분은 문자를 보내서 세미나리나 상호향상회에 친구들을 부담스럽지 않게 초대할 수 있다. 또한 오지 않은 친구들에게 그들이 보고 싶었으며 다음 모임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 밋치의 친구는 휴대전화에 성구를 다운받았다. 문자로 자신이 좋아하는 성구를 나누는 것은 누군가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고 감동을 줄 수 있다.

- 브리저는 부모님에게 그들의 하루가 어떤지 묻는 문자를 보내기 좋아한다. 그러한 메시지는 여러분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문자 보내기 기능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다. 그것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서로를 보며 나누는 대화를 대체할 수는 없다.



대중매체의 폭력이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놀라웠다.

익명

나는 “아빠, 제발요. 이 영화는 폭력 장면 때문에 이 등급을 받은 거예요. 가짜로 싸우는 장면이 조금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라고 졸랐다.

열여섯 살인 사촌과 내가 관람 등급이 더 높은 영화를 보겠다고 조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 우리는 모범적인 아이들이었고 세미나리와 교사정원회에도 열심히 참여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화가 얼마나 훌륭한 작품이며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는지 들었고, 그뿐 아니라 그 영화에 외설적인 장면이나 대사, 또는 노출 장면이 없고 욕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아버지의 시각은 달랐다. 마침내 아버지는 작전을 바꾸어 “좋다. 너희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니까 너희들이 옳다고 느끼는 대로 하거라.”라고 말씀하셨다.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들에게 부적절한 영화를 보지 말라고 했고 우리 집의 규칙은 R등급의 영화를 보지 않는 것이었다.(미국에서 R등급은 만 17세 미만인 경우 성인이 함께해야 볼 수 있다.) 나는 아버지가 우리 둘에게 그 영화를 봐도 좋다는

말씀을 해 주어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죄책감 없이 볼 수 있기를 바랐던 것 같다. 그 대신 아버지는 그 결정을 전적으로 내가 내리도록 하셨다.

아버지가 안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약간의 폭력 장면뿐이지 않은가.

사촌과 함께 그 영화를 보고 나자 내 기분은 엉망이었다. 나는 내가 R등급의 영화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시는 R등급의 영화를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 후에



약간의 폭력?



또 다른 약간 폭력적인 영화를 보았을 때 그 영화가 십대들이 보아도 되는 등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과 똑같이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왜 그럴까? 더 낮은 등급의 영화를 고른 것은 올바른 선택이지 않나? 아마도 문제는 영화의 등급이 아니었던 것 같다. 폭력성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폭력성이 내게 것처럼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꺼냈을 때 나는 전에 깨닫지 못한 중요한 점을 발견하고 놀랐다. “오락과 대중 매체” 아래에 “어떤 형태의 오락이든 조금이라도 저속하거나 부도덕하거나



영에 가까이 거함

“표준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를 성신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즐겁게 하는 무언가가 우리를 성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런 류의 것들은 분명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그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십시오”,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30쪽.

폭력적이거나, 외설적인 것이라면 결코 참여하거나 보거나 가담하지 마십시오.”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수긍하지 않았다. “그래, 폭력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 하지만 난 그런 장면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어떤 영화들은 꽤 자극적이지만 약간의 폭력 장면은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을 거야, 안 그래?”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다.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내용이 보였다. 폭력성을 피하라는 내용 다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표준을 지키겠다고 결심하십시오.”였다.

이런! 나는 죄책감이 들었다. 물론 내가 천박함, 부도덕함과 외설물을 피함으로써 옳은 일을 선택했다고 합리화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준을 대부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그 표준을 모두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내가 진정으로 결심한 것이 맞는가?

그 영화가 어떤 등급인지, 그 안에 폭력성이 어느 정도 포함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을 거스르기에는 충분했던 것이다. 그리고 영화의 경우가 그렇다면 다른 대상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까? 욕설이 아니더라도 영을 거스르는 말이 있을 수 있으며 가사가 나쁘지 않더라도 영을 거스르는 음악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보고, 읽고, 말하고, 듣고, 즐기는 것들을 좀 더 잘 선별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 며칠 후 나 자신이 벌써 달라진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영의 영향력에 대해 내가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었는지 몰랐던 것이다.

내가 폭력적인 장면을 덜 보게 되자 화가 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더 쉬워졌고 형들과도 덜 다투게 되었다. 욕설을 말한 적은 없었지만 내 언어를 정화하려 노력했을 때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영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약간의 폭력성”도 영을 거스르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

매체에 나타나는 폭력

폭력적인 영화와 TV쇼를 보는 것은 그 등급 여하와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다. 30년 이상 동안 교회의 지도자들은 폭력물을 보는 것에 대해 경고해 왔다. 2000년에 미국 의료계의 권위자들 또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매체를 통해 보여지는 폭력과 일부 어린이들의 공격적인 행동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해 1,000건 이상의 연구결과들이 지적하고 있다. 30년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보건의료계는 오락매체의 폭력을 보는 것은 공격적인 태도, 가치, 행위를 심화시킨다고 결론 내렸다.”(“폭력적인 오락물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동성명” [2000년 7월 26일], <http://www.aap.org/advocacy/releases/jstmtvec.htm>)



성전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성전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교리와 성약 95:8: “집 한 채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그 집에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에게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하려고 생각하고
있느니라.”

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성한 성약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해를
미치는 불순한 것들을 걸러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건치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잃지 않을 것이며 영생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성약은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힘과 시야의
한계 위로 들어올려 줍니다. ... 성전
의식은 개인의 발전,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들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패하여 고통 받는
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성도들은 “의로움과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로 무장한 ‘주의 성약의
백성’입니다.[니파이전서 14:14] 그들의
모범은 모든 인류의 삶을 들어올릴
것입니다.”(“성전 축복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38~3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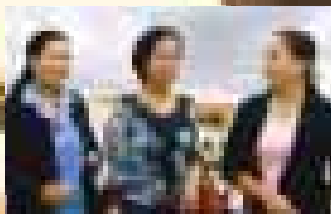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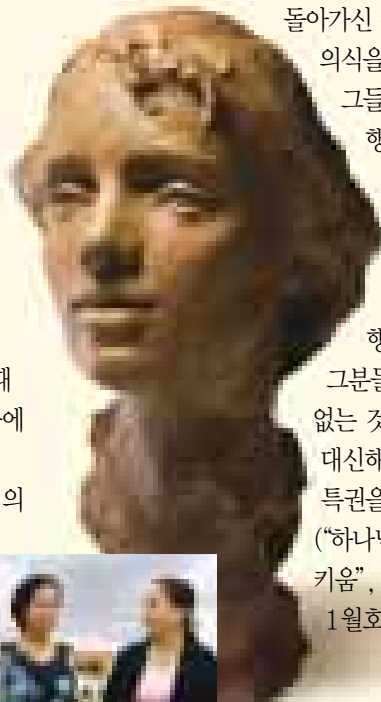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개인적으로 합당한 것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또한 궁극적으로
‘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 [교리와 성약 84:38]을
상속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교리와
성약 121:4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우리도 갈 수 있을 만큼
합당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과 행복의 약속들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지상의 사명은
그분의 것이 됩니다.”(“영원을 향해
바라보십시오!”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32쪽)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고 성전에 자주
가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거룩한 의식을
받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커지고 소망이
강해지며 사랑이 깊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세우신 계획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각자의
내부에 잠재된 거룩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성약을 끝까지 충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소망과 그렇게 하리라는
믿음으로 엔다우먼트를 받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성전
의식을 받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는
행동이며, 이 생에서
사는 동안 받지 못한
중요한 축복들을
앞서 가신 분들이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분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키움”,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27쪽) ■





결혼 생활을 강화하고 동등한 동반자가 됨

브루스 시 하펜 장로
칠십인 정원회
마리 케이 하펜

그는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있다. 그는 직장에서 돌아와 이제 집에 들어왔다. 부엌에는 일상 생활의 잔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아기는 울고 세 살배기 꼬마는 컵이 아닌 조리대 위에 우유를 쏟아 부었다. 일곱 살 된 아이에게는 아빠의 관심이 필요하다. 저녁 식사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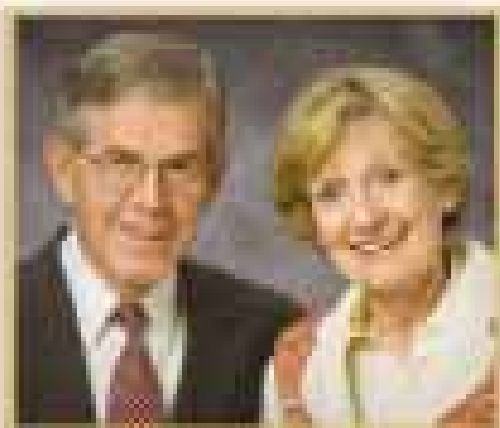
마감일이 내일이고 퇴근길 차량에 시달린 나머지 두통이 온 상태에다가 오늘밤 교회 모임에도 가야 하는 그는 아내가 자신을 맞아 주며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해 주길 바란다.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아내는 도움의 손길이 온 것에 기뻐한다. 그러나 그의 실망한 표정을 보자 그녀의 태도는 방어적으로 변한다. "이봐요, 나도 하루 종일 일해요.

아이들이랑 쉬지 않고 함께 있었고 휴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마카로니 치즈 좀 요리해 주고 아이들 좀 봐 줄래요?"

그녀의 부탁으로 인해 그의 희망은 짜증으로 변하고 그는 그 부탁을 거절하려고 한다.

바쁜 하루의 이 결정의 순간에 이 부부에게는 몇 가지 선택권이 있다. 이 순간을 통해 서로 동반자가 되어 주겠다고 성약을 맺은 대로 노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가정이나 문화에서 전에 겪었던 경험에 근거해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들 삶의 일부가



성전 결혼 성약으로 인해 마법처럼 동등한 동반자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성약은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발전 과정에 참여하게 한다.

되어버린 특정한 태도와 생각은 그들이 서로에 맞설 때가 아닌 함께 노력하고자 할 때 도전 과제가 된다.

그가 지배적인 아버지와 순종적인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했다고 가정해 보자. 기본 좋은 남편이 깨끗하게 닦여 반짝거리는 현관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여보, 돌아왔소!"라고 외친다. 차분한 아내는 완벽한 헤어스타일에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뽀뽀한 앞치마를 두르고는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여보. 넥타이 푸시고 앉으세요,"라고 말하며 그를 맞이한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

한 미국 교회가 최근 그 신조에서 밝힌 것처럼 그의 부모가 아내의 최우선 의무를 "남편에게 상냥하게 순종한다"로 생각한다고 가정해 보자. 또한 그들이 남편의 최우선 의무는 지시를 내리는 것, 즉 인도하고 할 일을 정해 주며 결과를 바라는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번엔 그의 아내가 여성 해방 운동에 동조하는 부모 슬하에서 성장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녀의 어머니는 여성들이 더 이상 그들의 존재감을 부인하는 듯 경직되고 자기희생적인 역할에 억지로 순응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산다는 것에 감사를 느낀다.

아마 그녀의 어머니, 심지어 아버지 역시도 영리한 아내란 남편과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얼마만큼의 시간과 자기 자신을 할애할 것인지를 정해 두는 법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여성 자유의 시대에 아내는 우선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개인적인 우선순위를 더 신경 써도 되기 때문이다.

서로 의지하기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정정하여,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이 가상의 부부가 성장했던 가정이 보여준 것과는 명백하게 다른 남편과 아내의 개념을 가르친다. 이 선언문에 의하면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¹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도록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젊은 남편의 부모는 여성이 남편에게 온전히 의존한다는 구시대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 그 젊은 아내의 부모는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독립된 개체라는 신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회복된 복음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호 의존해야 한다는 영원한 개념을 가르친다. 둘은 동등한 동반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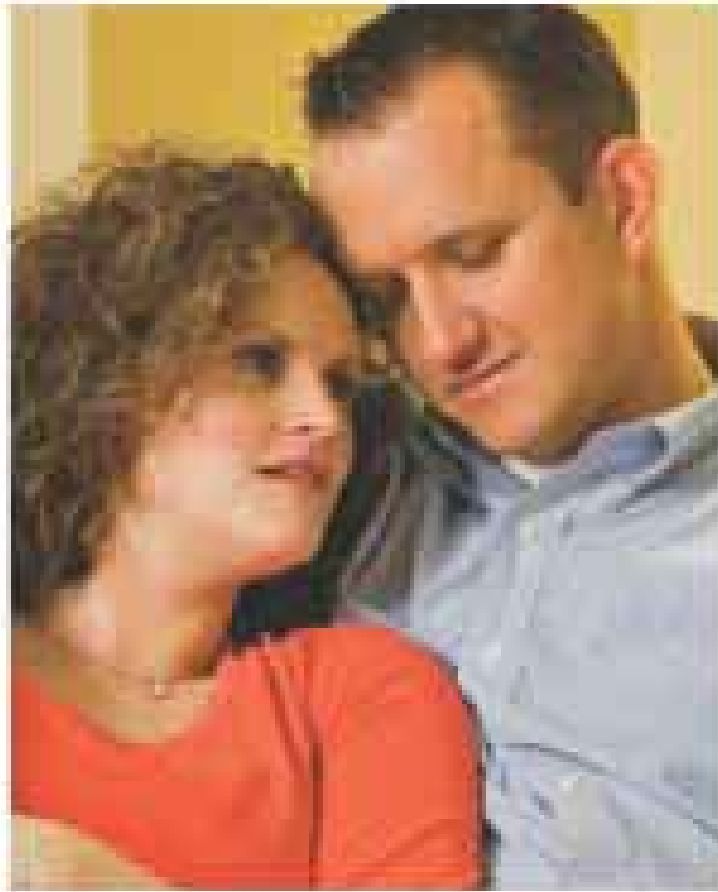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잘못된 개념, 즉 아내가 남편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개념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 비극적인 실수였으며 이브가 그 실수의 주 원인이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브의 죄에 대한 당연한 처사로 여겨지게 되었다.²

다행히도 회복된 복음은 아담과 이브의 선택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어나야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었다. 우리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 비난 대신 경의를 표하며 아담과 이브를 동등한 동반자로 본다.

결혼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현대의 여성 해방주의적 개념 또한 잘못된 것이다.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차이가 있다 해도

남녀간의 역할을 정의 내릴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주장한다.

어떤 면에서는 의존적인 아내의 과도한 이타심이 남성의 지배를 허락하고 심지어는 부추겼을 수도 있다. 이에 대응하여 여성 해방 운동의 급진파는 상호 의존의 가능성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비의존이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갔다. 이 문화 운동의 결과로 야기된 감정은 일부 여성들이 과거에는 너무 이타적이었다면 이제는 너무 이기적으로 변화하고, 스스로 희생을 선택하는 데에서 얻을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이런 성장의 기회는 여성이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보살핌으로써



그들이 더 큰 능력을 갖게 해주는 데도 말이다.(요한복음 17:19 참조)

상호 의존적이며 동등한 동반자의 개념은 회복된 복음의 교리에 탄탄한 기반을 두고 있다. 이브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창세기 2:18)이었다. 히브리 원어에서 배필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브가 아담에게 적임인 혹은 동등함을 뜻한다. 그녀는 그의 종도, 종속자도 아니었다. “위하여 돕는 배필” 중 “돕는”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ezer이며, 이는 이브가 오직 여성에게만 주어진 은사인 영적 본능으로 그들의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되었음을 뜻한다.³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의 말씀처럼 남성과 여성의 천성은 다르며 기본적인 인간의 특성상

많은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완전함과 승영을 결정짓는 미덕과 속성은 선천적으로 여성이 [더] 가지고 있다.”⁴

창세기 3:16에는 아담이 이브를 “다스릴 것”이라 나오지만 이 때문에 아담이 독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통치자는 기준을 세우는 자이다. 그러므로 아담은 다른 사람들이 그의 행실을 보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생활해야 했다.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권력에 대한 특권이 아니라 자신이 말한 대로 생활해야 하는 의무이다. 또한 “[누군가의 위에서] 다스릴 것”이라는 말 중 “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bet*, 즉 위에서가 아닌 함께 다스린다는 것을 뜻한다.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 지배 … 하려 하면”(교리와 성약 121:37)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중식시키실 것이다.

거짓 가르침이 경전의 본래 의미를 왜곡했기 때문인지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1895~1985년)은 “다스리다”라는 말보다 “감리하다”라는 말을 선호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그 어떤 여성도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남편을 따라 악을 행하라는 권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남편이 이 세상의 구주를 따르고 순종할 때에[만] 그를 따라야 하고, [그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언제나 공정해야 합니다.”⁵ 이러한 면에서 김볼 회장은 결혼이 “온전한 동반자 관계”라 여겼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 후기 성도 여성들이 침묵의 동반자, 제한적인 동반자가 아닌, 기여적이고 온전한 동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⁶

배우자들이 동등해지기 위해 똑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는 없다. 여성의 타고난 영적 본능은 도덕적 나침반과 같아서 도덕적으로 무엇이 올바른지 가리킨다. 나침반 부푼이 고장 났을 때를 제외하고 말이다. 남성의 주요 은사는 신권이다. 의로움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남편과 아내가 현명하다면 둘은 서로를 위해 조언을 주고 받을 것이다. 남편은 아내가 가진 내적인 영적 나침반의 가리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아내 또한 그의 의로운 권고에 귀 기울일 것이다.

창 세기 3:16에는 아담이 이브를 “다스릴 것”이라 나오지만, 이 때문에 아담이 독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담은 다른 사람들이 그의 행실을 보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생활해야 했다.



또한 동등한 동반자 간의 결혼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반자 모두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 준다. 양쪽 모두 그들을 인도해 줄 양심과 성신이 있다. 양쪽 모두 가정 생활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 또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균형 잡힌 제자, 즉 온전한 영적 존재가 되고자 노력한다.

동등한 동반자와 결혼하기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1926~2004년)는 교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남성들은 신학자로, 여성들은 기독교인으로서만 생활해 왔다고 지적했다.⁷ 동등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은 기독교의 원리에 따라 생각하고 생활해야 한다.

1996년 맥스웰 장로는 자신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진단 결과에 낙담적으로 순응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기꺼이 복종하고자”(모사이사서 3:19)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죽음과 가까워졌다면 자신의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리서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부인 콜린 자매는 그가 너무 쉽게 포기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사랑이 담긴 솔직함으로 그녀는 그리스도께서도 먼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셨다는 것을 들어 말했다. 그렇게 한 후에야 주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라고 말하며 순종하셨다는 것이었다.

맥스웰 장로는 부인의 교리적 통찰을 인지하고 그에 동의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의 목숨을 살려 달라고 함께 간구했다. 그들의 의지에 자극을 받은 맥스웰 장로의 주치의는 실제로 그의 삶을 몇 년간 더 연장해 준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냈다. 맥스웰 장로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자신만이 유일하게 기독교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를 느꼈다.⁸

동등한 동반자와 결혼 생활을 할 때 “사랑은 소유물이 아닌 참여하는 것이며 …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인 공동 창조의

일부”이다.⁹ 진정한 참여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 시너지 효과를 만들며, 그 힘이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후손들의 영적인 삶에 “영원 무궁토록” 흘러가게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121:46)

가족이라는 작은 왕국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배우자는 나는 갖고 있지 못하지만,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무언가를 줄 수 있다. 배우자들은 반주자가 딸린 독주자도 아니며, 그렇다고 두 명의 독주자도 아니다. 두 배우자는 혼자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화음을 이루는 듀엣 같은 것이다.

우리의 배우자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줄 수 있다. 바울이 기록한 것과 같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8:13~14)

성전 결혼 성약으로 마법처럼 동등한 동반자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성약은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발전 과정에 참여하게 한다.

부엌에서 절정의 순간에 놓여 있던 그 부부는 영원한 가족의 화합을 위한 약속에 대해 공통된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등한 동반자 관계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관계는 *지상에서* 선택할 때마다, 대화를 할 때마다, 결정을 할 때마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는 것은 그날 밤, 또는 그와 비슷한 수많은 밤에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는 데 보이는 인내와 같이 크나큰 노력이 요구된다.

조리대에서 우유가 똑똑 떨어지는 동안 아내는 마카로니 치즈 상자를 손에 들고 있고, 남편에게는 마감 날짜와 회의가 기다리고 있으며, 둘 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하다. 성약을 맺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균형 잡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이 순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 후 이어질 순간들은 어떻게

남 편과 아내가
현명하다면
둘은 서로를
위해 조언을 주고 받을
것이다. 남편은 아내가 가진
내적인 영적 나침반의
가리침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아내 또한 그의 의로운
권고에 귀 기울일 것이다.



동등한 동반자 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을까?

젊은 아내여, 그대는 남편이 식탁에 음식물을 가져오기 위해 하루 종일 일했다는 것을 아는가? 젊은 남편이여, 그대는 아내가 그 음식물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 하루 종일 일했다는 것을 아는가? 그대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자신의 배우자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는가?

사랑의 출발점

일생 동안 함께 연습하고 인내한 후에 맞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은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 존과 테리사 클라크와 비슷한 모습, 비슷한 느낌일까? 1921년, 유타 주 맨타이 출신의 존 해슬렘 클라크는 일지의 마지막 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제 오늘 이곳에 모여 있는 가족들이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뛰어나는 발걸음 소리, 소리 내어 웃고 떠드는 소리들 모두 멈추었고, 이제 우리는 *단둘이서* 함께 있어요. 운명에 의해 하나가 된 우리 말이지요. 60년 전 6월, 우리는 나무 아래서 만났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먼저 입맞춤했죠. 소녀였던 당신은 무척 수줍어했고 또 두려워했어요. 세상의 어떤 여성도, 그리고 하늘의 어떤 여성도 당신이 내게 주는 의미를 줄 수는 없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선 당신은 그 어떤 아름다운 처녀보다 제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 바로 나의 고향입니다. 당신이 없는 곳에서 나는

향수만을 느낄 뿐이지요. 당신을 바라보며 나는 사랑보다 위대한 그 무엇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내가 수치스럽게 쫓겨났을 때 당신은 나를 따라 주었습니다. 내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을 때 당신의 시원한 손은 나를 달래 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손을 잡고 하늘의 구원 받은 자들 곁을 지나쳐 가서 그들 사이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보다 여덟 살 더 많았던 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헤어져야 할 날이 더 가까이 왔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둘 중 누군가가 어떻게 홀로 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했지요. 56년이란 세월을 함께 보낸 후에 혼자 남다니요. 저는 이에 대해 생각하기조차 두려웠고 약간 이기적이기는 하지만 내가 좀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혼자 남게 되는 쪽은 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 다음 같은 페이지에 다른 사람의 글씨가 보인다. 테리사가 존의 일지를 부드럽게 마무리한다.

“마지막으로 글을 쓴 지 2년 반 정도가 되었고 그 후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 아픈 나머지 그의 인생 동반자였던 나는 이 글을 쓰기 위해 몇 번이나 펜을 들었다 놓았는지 모른다. 상실과 외로움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지며 죽는 날까지 그러할 것이다. ... 시간이 이 슬픔을 무디게 해 줄 수 있을까? 그가 나를 기다리지도 부르지도 않는다고 느끼면서 이 정든 집을 떠날 수 있을까? 나는 그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그의 존재가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고 느껴지는 집에서라야 안심이 된다.”

“1923년 3월 11일, 존 헤슬렘 클라크는 일주일 동안 병을 앓은 뒤 세상을 떠났다. 그는 말도 하고 활발했으며 평소와 똑같아 보였다. 우리는 그의 사망 몇 시간 전 그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 끝이 가까워졌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아, 우리 모두가 것처럼 깨끗하고 순수하며 우리의 창조주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었기를.”¹⁰

우리는 존과 테리사가 일생 동안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56년간 매일 나누었던 대화로 인해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며 어떤 사랑을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존과 테리사 클라크가 매일 나누었던 대화로 인해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며 어떤 사랑을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젊은 부부가 인생 말기에 그들도 이러한 사랑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무엇인들 바치지 않으랴! 그들은 매일, 몇 번이고 되풀이 하여 좀 더 귀 기울이고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이다. 그들은 인내심 가득한 경험을 통해 “행동이란 눈에 보이는 사랑”¹¹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좀 더 나은 제자가 되며 심지어는 좀 더 그분과 같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생의 마지막 경계를 넘으며 그들이 그분과 하나가 된 것처럼 서로 하나가 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주

1.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2. Elaine Pagels, *Adam, Eve, and the Serpent* (1988년), 68쪽 참조.
3. 브리검 영 대학교의 도널드 더블류 패리 교수가 히브리어 번역을 도왔음.
4.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21쪽.
5. “The Blessings and Responsibilities of Womanhood”, *Ensign*, 1976년 3월호, 72쪽.
6. “여성의 특권과 책임”, *성도의 벗*, 1979년 4월호, 146쪽.
7. *Wherefore, Ye Must Press Forward* (1977년), 127쪽 참조.
8. Bruce C. Hafen, *A Disciple's Life: The Biography of Neal A. Maxwell* (2002년), 14~15, 555쪽 참조.
9. Madeleine L'Engle, *The Irrational Season* (1976년), 98쪽.
10. Bruce C. Hafen, *Covenant Hearts: Marriage and the Joy of Human Love* (2005년), 265~266쪽에서 발췌.
11. Kahlil Gibran, *The Prophet* (1973년), 28쪽.

질문의 응답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할 수 없는 일들에만 초점을 두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이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없는 날이 아닌, 기다려지는 날이 되게 할 수 있나요?”

리아호나의 대답

주 님께서는 안식일을 안식과 예배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주중의 다른 날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에 다른 날에 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에 주님을 우선시하는 것을 배우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이사야 58:13)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동시에 안식일을 기대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입니다.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둔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 또는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많은 규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셨을 때마저도 그분을 비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는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범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사전에 계획한다. 우선 안식일에 하고 싶은 일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초점을 두십시오.

사전에 계획하면 안식일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일요일에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안식일은 여러분을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축복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발전 기록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이를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런 다음 안식일에 영적인 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중에 학교 과제, 집안일, 그리고 다른 일들을 마무리하십시오. 사전에 계획하면 안식일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집에 앉아 가족을 불러 모으십시오. 안식일에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모임에 참석하고 참여하십시오.”¹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안식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움을 간구한다.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안식일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으며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시고는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다.(니파이 전서 3:7)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27)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면 매 일요일을 고대할 수 있도록 축복 받게 될 것입니다.

주

1. "Excerpts from Recent Addres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Ensign*, 1996년 8월호, 61쪽.

독자들의 대답



안식일은 구주와 복음에 대해 좀 더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께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겐 특별해요. 또 세상의 소란함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영이 전해 주는 고요와 평화를 느낄 수 있지요. 금식, 기도, 경전 공부를 하며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다면 분명 그분은 찾게 될 것이며 그분께서는 영으로 축복을 내려 주실 거예요. (예레미야 29:13) 그분의 영은 자매님이 세상적인 근심을 제쳐 두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이사야 58:13~14)

모라이어 엠, 15세, 미국 아이다호 주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저도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안식일이 얼마나 훌륭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힘을 간구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힘을 간구하면 안식일은 가슴 설레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안식일에는 쉬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축복 받고 우리의 영성을 키우며 영적인 힘을 한껏 받을 수 있습니다.

리차드 알, 16세, 콜롬비아 나리뇨



안식일을 평일과는 다른 날로 만들어 보세요. 친구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긴다거나 숙제할 수 있는 하루를 포기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대신 그런 세속적인 일들을 택할 때

놓치게 될 영원한 축복과 기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영적으로 충만한 느낌과 다가오는 주에 대해 더 잘 준비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경건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저는 자매님이 진심으로 일요일이 주중 최고의 날이라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강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피아 더블류, 16세, 미국 메인 주



저는 일요일에 교회 부름과 신권 부름을 수행할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좀 더 쉬워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사로서의 제 임무를 수행하고 교사와 집사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도울 때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앤드류 에스, 17세, 미국 몬테나 주

저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안식일을 기다립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커다란 사랑을 느낍니다. 안식일에는 제 삶의 모든 어려움을 잊게 됩니다. 성찬을 취할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위대한 희생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견디신 끔찍한 고통을 기억합니다. 제 마음은 자애로 가득 찹니다. 저는 이 느낌을 제 이웃, 특히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안나 알, 20세, 우크라이나



안식일을 기회의 날로 보세요. 할 수 있는 모든 가족 활동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서 일요일은 교회에 가고 정신을 고양시켜 주는 글을 읽으며 교회 관련 영화를



“안식일은 ... 주님을 예배하고, 지식과 가르침의 샘물을 마시며,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음악과 노래를 통해 정신적인 고양을 얻기 위해 모임에 일관되게 참석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합당하며 거룩한 일들을 하기 위한 거룩한 날입니다. ...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공과를 준비하고 복음을 공부하고 명상하며 병들고 낙담한 이웃을 방문하고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쓰며 낮잠을 자고 건전한 글을 읽고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1895~1985), “The Sabbath—A Delight,” Tambuli, 1978년 7월, 5쪽.

보고 노년의 모임에 가고 가족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께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한 날입니다.

저스틴 디, 18세, 미국 워싱턴 주

제가 주님의 날을 신성하게 지키기로 마음먹은 후에 그날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안식일에 경건과 예배의 영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예를 들어 그날은 일찍 일어나고 경전을 읽으며 개인 발전 기록부를 작성하고 일지를 기록하고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과 그 밖의 영적인 활동을 할 때에 저는 제 안에 있는 놀라운 영과 기쁨을 느낍니다. 또 저는 덜 영적인 활동을 할 시간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실비아 엠, 18세, 브라질 그란데 두 술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호 질문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이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답변을 보내 주세요. 성명, 생년월일, 와드와 스테이크(지부 및 지방부), 사진(여러분의 사진 인쇄에 대한 부모님의 허가서 포함)을 함께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 Answers 9/07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30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2007년 9월 15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

희망을 갖는 법을 배우다

내전이라는 끔찍한 공포 속에서 나는
한 권의 책과 비닐봉투 안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마리아마 칼론
릴리 엠 로리머, 교회 잡지

내가 청소년이었을 때 나의 고향인
시에라 리온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내
삶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서
아프리카의 작은 국가인 나의 조국은 내전으로
황폐했다. 모든 것이 전쟁의 영향을 받았다.
가족과 나는 반군들을 피해 끊임없이 도망다녀야
했다. 반군이 도시를 지날 갈 때마다 두려웠다.
누군가 밤에 반군의 횃불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렸으며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것을 들고 숲으로 도망치곤 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약 7년 후에 반군은 우리
도시를 공격했다. 우리 가족은 그들을 피해
도망갔으나 나보다 조금 뒤쳐진 부모님은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은 컸으나
나는 계속 도망쳐야 했다.

나는 오빠와 언니와 함께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아 피신했으며 잠시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곳 역시 반군들의 공격을

전통 아프리카 의상을 입고 있는 마리아마 칼론
자매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중 하나인
위생용품 세트를 들고 있다.





시 에라 리온의
회원들과
다른 이들을
위해 교회가 식량과
인도주의 물품들을
보내왔다. 나는 담요와
위생용품 세트를 받았다.
그것들은 너무나
소중했다.

받았다. 이번에는 도망갈 시간이 없었다. 오빠는 잡힌 뒤 나중에 살해되었다. 언니와 나는 다른 모든 여제들과 함께 바깥으로 끌려나가 줄지어 섰다. 반군들은 줄 서 있던 사람들의 사지를 잘라버리고 있었다. 우리는 겁에 질렸다. 모두가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전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까지 기도했다. 나는 당시 교회 회원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을 믿었으며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나를 구해주시기를 바랐다.

나보다 몇 사람 앞쪽에 서 있던 나의 사랑하는 언니는 두 다리를 모두 잘렸다. 하지만 반군들이 바로 내 앞에 서 있던 여자에게 다가왔을 때 정부군 군대가 들이닥쳤으며 반군들은 도망쳤다.

나는 내가 내 앞이나 뒤에 서 있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목숨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렸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마련하셨는지 이해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친구와 함께 살기 위해 다른 마을로 이사했다. 내가 그 친구와 몇몇 이웃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 주자 한 이웃이 “마리아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곤 내일 교회에 한 번 참석해 보라고 말하는 것 밖에 없네요. 거기서 우리는 안전과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 삶에 위안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음날 교회에 가기로 결심했다.

내가 후기 성도 교회의 한 지부에 처음 참석한 그 일요일을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희망에 대해 배웠다. 회원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 보였고 그들에게 마음이 끌렸다. 몰몬경을 받은 후 나는 곧바로 읽기 시작했다. 교회에서 가족이 사망한 뒤에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지 들은 것과 앨마서 11장에서 앨마가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어떻게 완전해지는가에 대해 가르친 부분을 읽었던 것을 기억한다. 가족을 생각했을 때 나는 너무나 강하게 영을 느꼈다. 나는 이 교회가 참되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으며 온전하고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당시 시에라 리온에는 선교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지부회장님으로부터 복음을 배웠고 곧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교회 회원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보낸 식량과 인도주의 물품들로 우리는 축복받았다. 그 식량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었다. 모두들 쌀이나 콩이 든 작은 자루 하나만 받아도 너무 감사하게 여겼다. 나는 담요와 칫솔, 치약, 샴푸, 비누, 빗, 수건이 들어 있는 위생용품 세트를 받았다.

얼마 후, 반군이 또다시 공격했다. 그들은 내가

살고 있던 집을 불태웠고, 나는 화염을 피해 도망가면서도 경전과 위생용품 세트만은 챙겼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도망다니며 살아야 했고 나는 주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위생용품 세트를 사용했다. 나는 각자에게 치약을 조금씩 짜서 나눠 주었고, 우리는 강으로 가서 한 사람씩 조심스럽게 내 비누를 썼다. 위생용품 세트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담요도 마찬가지였다. 그 담요는 오랫동안 우리를 따뜻하게 해 주었다. 나중에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같이 묻을 것이 없어서 나는 그 담요를 함께 물어드렸다.

나는 다시 내 마을과 지부로 돌아갔다. 그때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했지만 이 결정을 내리기는 무척 힘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선교 사업을 나가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 때 교리와 성약 84편 81절과 88절을 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며, 무엇을 먹을까 혹 무엇을 마실까 혹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 이는 내가 너희 앞서 나아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 나는 주님께서 나를 돌봐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 추천서를 제출했고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템플 스퀘어 선교부로 부름 받았다.

나는 실제로 유타에 올 때 빈손으로 왔지만 내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위생용품 세트만은 꼭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내 동반자와 솔트레이크에 위치한 인도주의 센터를 둘러보고 있는데 그때 내가 시에라 리온에서 갖고 있던 것과 똑같은 상호부조회 로고가 찍혀 있는 담요를 발견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내 것과 똑같은 위생용품 세트와 눈에 익은 콩과 쌀 자루가 보였다. 나는 울기 시작했다.

“여기서 그 물품들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도주의 센터에 쌓여 있던 이 물품들이 시에라 리온에 살던 내 친구와 내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를 기억하자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나를 구해주시고 내 삶에 복음을 가져다주시며 선교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했다. 나는 그분의 천사들이 내게 힘을 주시기 위해 참으로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내 가 인도주의
 용품을
 받았을 때, 내
 이복 여동생은 학용품을
 받았다. 학교에서 동생만이
 유일하게 종이를 가지고
 있었다. 내 동생은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찢어서
 그녀의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세 자루의 연필을
 반으로 쪼개어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은 매일 수업 내용을
 필기했고 매일 밤 필기한
 내용을 조심스럽게 지워서
 다음날 종이를 다시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은 학습
 도구가 있음을 감사해
 했다.



훌륭한 회원 선교사가 되는 방법

와드와 지부가 선교 사업의 중심이 됨에 따라 회원들이 더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다음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후기 성도들의 제언이다.

알 발 존슨
교회 잡지

마 자매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교사일 것이다. 적어도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 앤소니 미들턴 회장의 생각에는 그렇다. 레나 마 자매가 전임 선교사인 것도 아니고, 게다가 그녀는 영어가 공용어인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중국어를 사용하기에 미들턴 회장의 그런 의견은 다소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매해 적어도 두 명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돕는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꽤 오랫동안 개종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미들턴 회장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고 있다. 마 자매, 그리고 그녀와 같은 모범을 보이는 다른 회원들 때문에 그 선교부에 침례와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구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미들턴 회장은 말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신권 지도자들이 선교 사업에 주목하기 시작하자 그 곳 후기 성도들도 진정한 회원 선교사로 변화하고 있다. 그들이 배우는 교훈은 전세계 어디서나 선교사 정신을 가진 회원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변화



밴쿠버 선교부는 개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수년 동안 노력해 왔다. 나나이모 브리티시 컬럼비아 스테이크 콜린 벤 혼 회장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는 “종교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합의가 있어요. ‘난 괜찮으니 내버려 둬’ 라는 말도 있어요”라고 말한다. 그런 문화 때문에 오랫동안 선교 사업은 전임 선교사만의 몫이었고, 선교사들은 가가호호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가가호호는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었다.

그래서 2년 전에 총관리 역원의 권고에 따라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선교부 회장과 스테이크 회장들이 변화를 시도했다. 이 변화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회원들이 비회원들에게 복음을 더 잘 소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이었다.

집회소에 초대하기

스테이크 회장들이 시도한 변화 중 하나는 근처의 미국 워싱턴 주 타코마에서 성공을 거둔 선교 사업 방법을 자기 지역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한 것이었다. 그곳 선교사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집회소에 바로 초대하여 그들이 직접 교회를 구경할 수 있게 했다. 선교사들은 교회 시설과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회복에 대해 가르친다. 예배실이나 첫 번째 시현 그림 근처에서 집회소 구경을 마친 후, 선교사들은



침례 받는 날에 친구 레나 마 자매와 함께한 진 자오.(왼쪽) 자오 자매는 마 자매의 도움으로 교회에 들어온 여러 사람들 중 한 명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 간증을 하고 손님이 기도에 참여해 줄 것을 권유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집회소 초대는 이제 전임 선교사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동참하여 그들의 주변 사람들을 초대하는 포괄적인 선교 방법 중 하나가 되었다. 밴쿠버 선교부 기록에 의하면 집회소에 초대된 사람들과 회원이 함께하면 일곱 명 중 한 명이 침례를 받고 확인을 받게 된다고 한다.

미들턴 회장은 이 초대의 목적이 '이 교회의 회원이 되면 참 좋겠다. 이 교회는 분명히 나를 위한 어떤 것이 있구나.'라고

비회원들이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많은 새로운 회원들은 후기 성도 집회소에 처음 방문했을 때 느꼈던 영을 기억한다. 나나이모 브리티시 컬럼비아 스테이크의 포트 알버니 와드 말콤 코필 형제는 그의 이웃 톰과 마라 하우스홀더의 소개로 2005년 8월 교회에 들어왔다. 코필 형제는 자신을 교회로 이끈 것은 "처음 그 아름다운 건물에 발을 들여놓던 순간 받았던 훌륭한 느낌과 내가 받았던 따뜻한 환대였다."고 말한다.

밴쿠버 선교부의 전임선교사인 질 베렛 자매는 18세인 한 교회 회원이 친구를 초대해서 집회소를 구경하게 했던 일을 이렇게 기억한다. "구경을 하는 동안 너무나 고무된 그 구도자는 바로 저희와 토론을 하고 싶어 했어요. 회원은 구도자인 친구에게 물몬경 한 권을 주었고, 다른 친구들도 구도자를 청녀 야영에 초대했죠. 그녀는 큰 사랑과 소속감을 느껴 침례를 받기도 전에 그 와드를 '우리 와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후기 성도 집회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즉시 영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해 더 알기를 원하며 돌아간다.

성공적인 회원 선교사에게서 배우기

마 자매는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집으로 초대했다. 초대에 응한 사람들 중 20명 이상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미들턴 회장은 "저는 마 자매가 비회원을 동반하지 않고 교회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라고 말한다. 그녀는 언제나 사람들이 첫 방문을 하기 전에 무엇을 기대하며 가야 하는지 알려 주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는데, 그 순간 저는 소니가 절 놀렸다는 걸 알아차렸죠.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순간 어색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제가 전에 알던 친구같아요. 그 친구는 저희 교회 회원이었어요. 혹시 물론 교회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가 전에

회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그를 교회로 초대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병원에서 막 퇴원하는 길인데 마치 천사처럼 당신이 나를 교회로 돌아오라고 초대하는군요.’ 만약 제가 입을 열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교회에 다시 나올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지나는 길에 사람들을 두실 것입니다.”라고 소니는 말한다. 그는 어느 날 캠핑카를 후진시키다가 도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를 했다. 그는 견인차를

불렀고 영은 그 운전 기사에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속삭였다. “저는 그에게 ‘주님이 저를 이 도랑에 빠뜨려서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했죠. 그는 웃었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그의 할아버지가 한때 물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물몬경을 한 권 갖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우리는 가까이에 늘 물몬경

몇 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물몬경 한 권을 선물할 수 있었어요.”



오 레고 가족(위쪽)처럼 성공적인 회원 선교사들은 스스로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은 후에 그것을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한다. 오레고 가족은 가족 선교 사업 계획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배우도록 초대하는 데 집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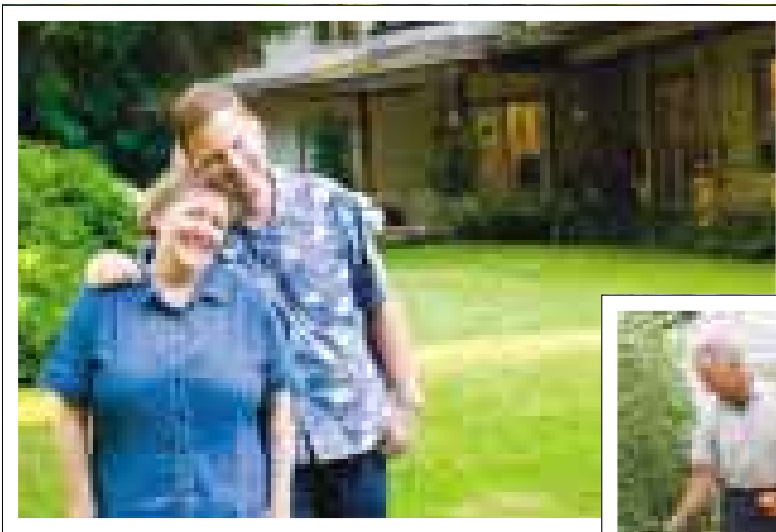
예를 들어 레나 마 자매는 도서관에서 루비를 만나 대화를 시작했다. “저는 루비에게 보통 일요일에 무얼 하는지 물었고, 그녀의 아들에 관해서도 물었어요. 그녀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아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묻고는 우리 교회 초등학교에 관해 설명하고 직접 와 보라고 초대했어요. 그녀는 왔고 그 이후 몇 번 더 모임에 참석했어요. 어제는 선교사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는 솔트 스프링 아일랜드 지부에서 앨버타에 있는 카드스턴 8와드로 이사한 소니와 웨이너 살라는 마 자매와 같은 방법을 선택했다. 소니와 웨이너가 복음에 대해 얘기를 나눈 이웃은 그들이 알고 지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를 포함해서 수백 명 아마도 수천 명은 될 것이다. 웨이너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즉시 ‘이 지역의 교회에 다니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다녀요. 이 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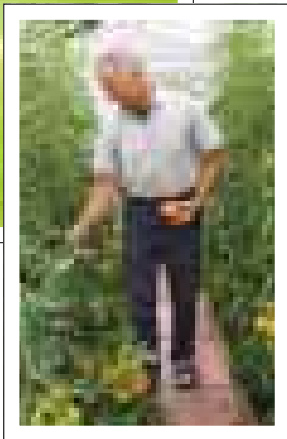
“우리는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 해 보기도 하는데요, 어느 날은 소니가 제게 어떤 남자를 가리키며 전에 우리 지부에 참석했던 회원같다면 가서 인사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와드와 가족 선교 계획 발전시키기

마 자매와 살라스 자매는 선교 사업을 매일 사람을 만나는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삼아 왔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는 것이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마리와 톰 하우스홀더(위쪽)는 그들의 작은 숙박업소에 영을 초대한다. 거기서 영의 영향력을 느꼈던 한 사람인 말콤 코펠(오른쪽)이 교회로 들어왔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때가 바로 와드 또는 지부 선교 사업 계획이 유용하게 쓰이는 때이다.

미들턴 회장이 선교 회장이 되고 난 후 바로 스테이크 회장들과 협의의 평의회를 열었고, 그때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스테이크 회장들은 선교 사업 계획에 대해 토론하고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권고하는 대로 와드와 지부의 선교 사업 계획을 위한 지침을 만들었다. 자신의 선교 사업 계획을 작성한 이들은 그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였다. 스테이크 회장들은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 자기 스테이크의 각 와드 및 지부가 해야 할 네 가지 원칙을 정했다.

1. 와드, 지부 선교 책임자와 모든 회원이 그 계획에 참여해야 한다.

2.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3. 가족들이 자신의 선교 사업 계획을 스스로 만들도록 권고해야 한다.
4. 간단해야 한다.

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부분의 와드와 지부는 자체 선교 사업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은 간단하기 때문에 작은 카드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 놓을 수 있다. 빅토리아 제2 와드와 몇몇 와드는 다음 단계에 따랐다. 프랭크 히치모우 감독과 와드 선교 책임자 마이클 말홀런드가 와드의 각 가족들과 만나 가족 선교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왔다. 그 계획에는 각 가족의 입장에서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목표와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책임 수행하기

말홀런드 형제는 성공적인 선교 사업의 열쇠가 꼭 실행 가능한 계획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성공의 열쇠는 그 계획만이 아니라 누가 책임을 수행하느냐입니다. 선교 사업에 헌신하는 케이즈 회장과 같은 스테이크 회장과 보좌들 때문에 계획이 실행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감독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감독이 선교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게 되면 그 사업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스테이크의 랜디 케인즈 회장은 지역 칠십인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신권 지도자들에게 선교 사업을 우선 순위로 두도록 어떻게 요청했는지 이야기한다. 많은 와드나 지부에서 선교 사업의 우선 순위는 다소 낮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신권 지도자들은 이제 선교 사업을 청소년을 돌보는 것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회원들이 성공적으로 선교 사업을 하는 와드의 감독은 신권 집행 위원회, 와드 평의회, 신권회와 상호부조회에서 선교 사업을 강조한다. 그들은 임무지명을 하고 와드 지도자들과 함께 구도자와 저활동 회원들의 진척 사항을 살펴본다.

여러 가지 와드 선교 계획 중에서 좀 더 효과적이었던 한 가지



방법은 감독이 한 번에 6~8명의 회원을 부르는 회원 선교사반이다. 교재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이며 주제는 선교 사업의 배경이 되는 교리, 그리고 스스로 선교 사업에 대한 동기를 얻고, 이를 수행하는 실제 방법들에 대한 것이다. 반원들은 선교 사업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역할극에 참여한다.

궁극적으로 선교 사업은 회원 개개인의 어깨에 놓여 있다. 모든 회원은 어떻게 복음을 가장 잘 전파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벤자민과 로빈 오레고는 자신의 가족에게 맞는 선교 사업 방법을 찾아내고 계획을 세우라는 부탁을 받기도 전에 이 방법을 가족 선교 사업의 일부로 만들었다. 이 가족은 “오두막집 모임”이라고 부르는 작은 모임에 사람들을 초대한다. 후기 성도가 아니라 해도 여기에 온 손님들은 모두 영적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저녁에는 식사와 게임을 즐기면서 오레고 가족은 교회 영화와 책자를 전하기도 한다.

오레고 가족은 개개인의 노력으로 하는 선교 사업보다 조직적이고 단합된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 계획의 일부로 매년 세 사람을 집회소로 초대해서 구경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의 와드와 가족의 선교 사업 계획에는 이러한 목표나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여러 목표들이 있다. 그 아이디어는 아보트스포드 브리티시 컬럼비아 스테이크 폴 크리스천슨 회장에서 시작되었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창의적이고 자연스럽게

크리스천슨 회장은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다른 아이디어도 생각해 보게 했다. 매달 스테이크 회장단은 전문가, 직장 동료 또는 이웃들을 초대할 것을 권유했다. 그는 전임

선교사가 신권 집행 위원회와 와드 평의회뿐만 아니라 보조조직 모임에도 참석하기를 원한다.

크리스천슨 회장은 선교사 구역 모임과 지역 대회에 참석하여 선교사의 역할은 가르치는 것이고, 회원의 역할은 초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씀했다. 회원들이 선교사들을 돕는 방법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간증하고 복음 원리를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요한복음 1:39, 46)도록 초대한다.

그가 낸 창의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는 교회 회원들이 비회원들에게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독신 성인 대회에서 많은 세미나가 열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 지역의 회원 중에 배관공이 있는가? 수리공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회원이 세미나에서 가르치도록 합시다. 지역 사회의 배관공을 데리고 오세요. 가서 잡역부를 찾아보세요. 그들을 데려오세요. 그들에게 집회소를 구경시켜 주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십시오.’ 우리는 지역 사회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어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스테이크는 수년간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려야 할 필요성을 실감해 왔다. 1978년 샌드라 길은 지역 사회 계보 협회를 조직했고 그녀의 지하 사무실에서 첫 모임을 열었다. 그녀는 아직도 그 협회 모임에 참석하여 반을 가르치지만 지금은 스테이크 센터에 있는 가족 역사 센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녀와 함께 일하는 60명의 다른 스태프는 대부분이 비회원이다. 이 센터는 일주일에 45시간 문을 열어 기록제출자의 약 70퍼센트는 교회 회원이 아니다.

길 자매처럼 톰과 마라 하우스홀더는 복음을 나누기 위해 그들의 관심과 주변 상황을 활용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찾았다. 하우스홀더 부부는 앨버니 항에 조식을

복음을 나누었던 경험이나 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회원들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복음에 관해 배우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리아호나*의 다른 독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나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Missionary Ideas, *Liahona*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제공하는 조그마한 숙박업소를 운영한다. 그들은 로비의 한편, 누구나 손이 쉽게 닿는 곳에 교회 잡지를 놓아두고 객실에는 성경과 몰몬경을 비치해 둔다. 그들이 그 숙박업소를 운영한 지 3년 동안 30권 이상의 몰몬경을 “분실”했으며 더 많이 분실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또한 성탄 절기에는 음악 축제를 개최하고 아기 예수 탄생 모형을 전시한다. 합창단원 중 한 명은 톰 하우스홀더가 감독으로 봉사하는 포트 앨버니 와드 출신이다.

영이 거하는 장소를 마련하다

애버트스퍼드 스테이크를 감리하는 크리스천슨 회장은 후기 성도들의 성전에 거하는 거룩한 힘을 굳게 믿는다. 그래서 그는 2006년 6월에 밴쿠버에 성전 건축이 발표되었을 때 무척 기뻐했다. “우리가 특별히 의롭기 때문에 성전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나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전을 갖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전이 가져다주는 빛이 필요해요.”

성전 뜰에서 느꼈던 느낌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브리티시 컬럼비아 사람들의 숫자는 놀라울 정도이다. “저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템플 스퀘어의 문을 통과했을 때의 그 느낌을 결코 잊을 수 없어요.”라고 빅토리아 스테이크의 줄리 케이즈는 말한다. “그것은 마치 암흑에서 광명으로 걸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만난 사람들, 조셉 스미스의 간증, 예수 그리스도에 중점을 두는 것 등과 같은 모든 경험을 통해 감명을 받았다. “저는 ‘이것에 관해서 더 많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브리티시 컬럼비아로 돌아온 그녀는 그 지역에 있는 후기 성도 집회소에 전화를 걸어 선교사를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한 교회 회원의 초대로 성전 뜰에 간 케이즈



자매는 그곳 회원들의 따뜻한 환대에 놀랐다. 케이즈 자매의 남편은 현재 빅토리아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나는 거의 모든 개종 이야기에서 공통된 것은 빛과 기쁨, 교회 회원이 발산하는 순수한 우정이다. 그들은 회원들과 함께하며 영을 느끼기 때문에 더 배우고 싶어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교회 회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인 것 같다. 그들은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이 자신들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배우고 있다. 그들은 단지 복음을 실천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집회소나 교회 활동, 회원의 가정, 성전 뜰 등 어느 곳이든 영이 거하는 곳으로 초대하면 된다. 경험이 많은 회원 선교사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초대를 거절하더라도 걱정하지 않는다. 이 회원들은 단지 초대를 계속할 뿐이다. 선교사들은 계속 가르친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영에 대해 간증하는 자녀들을 계속 축복하신다. ■

“감독이 선교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둘 때 그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라고 빅토리아 제2 와드의 선교 책임자 마이클 말홀랜드(위쪽)는 말한다. 최근 개종자 어마 맥아더(왼쪽), 베스 랜드리와 함께.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의 성전 결혼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게오바니 메디나

첫 번째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두 번째 사업이 잣더미로 변한 후에야 비로소 나는 약혼녀 베니를 성전으로 데리고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성전에 가는 것이 신앙을 시험하는 것이 될 거라는 말을 들어보기는 했지만 성전 결혼을 목표로 삼을 그때만 해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철저하게 시험 받을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

베니와 나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우리의 고국 파나마에서 만났다. 그 당시 파나마에서 성전 결혼을 원하는 남녀는 가장 가까운 성전인 과테말라 시티의 과테말라 성전으로 여행하기 바로 전에 일반 결혼을 했다.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든 여행이었지만 인봉 받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었고

우리는 이 축복 없이 살고 싶지는 않았다.

청혼을 한 다음날 나는 직장을 잃었다. 여기에 굴하지 않고 나는 버스 관광 가이드로 일하며 돈을 벌기로 했다. 버스는 첫날 밤에 고장이 났다. 걱정이 되었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음에는 티셔츠를 팔기로 했다. 공장에 셔츠를 받으러 간 그날 아침, 그 공장 건물이 전날 밤에 완전히 타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희망도 연기 속으로 사라진 듯 했다.

다음 성전 여행까지는 몇 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돈을 모으기 위해 내가 한 온갖 노력은 예상치 못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나는 다 타 버린 공장을 떠나 베니를 찾아갔다.

나는 그녀에게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아무래도 나와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말했다.

그녀는 “돈 때문에 결혼하려 했으면 난 벌써 했을 거야. 하지만 난 돈 때문에

우 리는
니카라과
국경에

도착할 때까지 길가
숙소에서 자며 계속해서
걸어간 뒤에 거기서
수도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결혼하려는 거야.”라고 말했다.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는 중요한 시험 하나를 통과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밀고 나갔을 때 기회가 오기 시작했다.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보수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나는 가구 공장에서 일을 찾았다. 그 후 친절하신 감독님이 버스 요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그의 제의는 기뻐지만 그것이 옳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우리의 의도는 스스로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는 버스 요금 대신 베니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그렇게 해 주었다.

성전 여행에 충분한 돈을 번 후에 우리는 일반 결혼을 했고 드디어 열 명의 교회 회원들과 함께 과테말라 여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운송업자들의 대규모 파업으로 우리는 코스타리카 국경에서 차를 세워야 했다. 이틀간 국경에서 기다린 후에 우리를 태웠던 운전 기사는 되돌아가기로 결정했지만 베니와 나, 두 명의 형제와 다른 한 부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버스가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코스타리카로 걸어갔다. 니카라과 국경에 도착할 때까지 길가 대피소에서 자며 계속해서 걸어간 뒤에 거기서 수도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온두라스 국경으로 가는 버스를 샀다. 이틀 동안 두 번 이상 버스를 갈아탄 뒤 드디어 성전에 도착했다. 무척 기뻐했지만 그때 우리의 온

몸은 더러워졌고, 이미 지쳐 있었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이들이 더 걸렸다.

몸을 깨끗이 씻은 후에 베니와 나는 산자의 의식을 위한 추천서를 분실한 것을 알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파나마의 우리 감독님은 그 날 출장을 떠날 계획이었다. 우리는 낙담했다. 온갖 시련이 헛된 것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베니의 웨딩 드레스를 다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오도록 도우셨다면 끝까지 보살피 주실 것이라 믿었다.

우리는 감독님이 출장을 떠나고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전화 해 보기로 했다. 놀랍게도 감독님은 출장을 가지 않았고 자신이 집에 있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너무나 기뻐했다. 감독님은 가능한 빨리 팩스로 필요한 서류를 보내 주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성전 결혼 대기실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으므로 두 시간 후면 성전은 월요일까지 문을 닫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 팩스를 보내려고 준비하는 순간에 정전이 되었다는 감독님의 사과와 함께 드디어 팩스가 도착했다.

온갖 시련과 기다림 끝에 드디어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 영원히 인봉되었다. 온갖 힘든 일과 기다림, 걱정 후에 인봉된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찼다.

성전에서 결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베니와 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성전에 갔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경험은 분명 연단의 과정이었다. 우리와 같이 성전에 갔던 네 명의 형제 중 세 명은 후에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고 두 명은 현재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것은 내 생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 중 하나였다.

우리의 목표였던 성전 결혼이 단지 이 세상에서만 사랑을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된 신권에 의한 인봉 권능을 믿고 성전 결혼이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것이며,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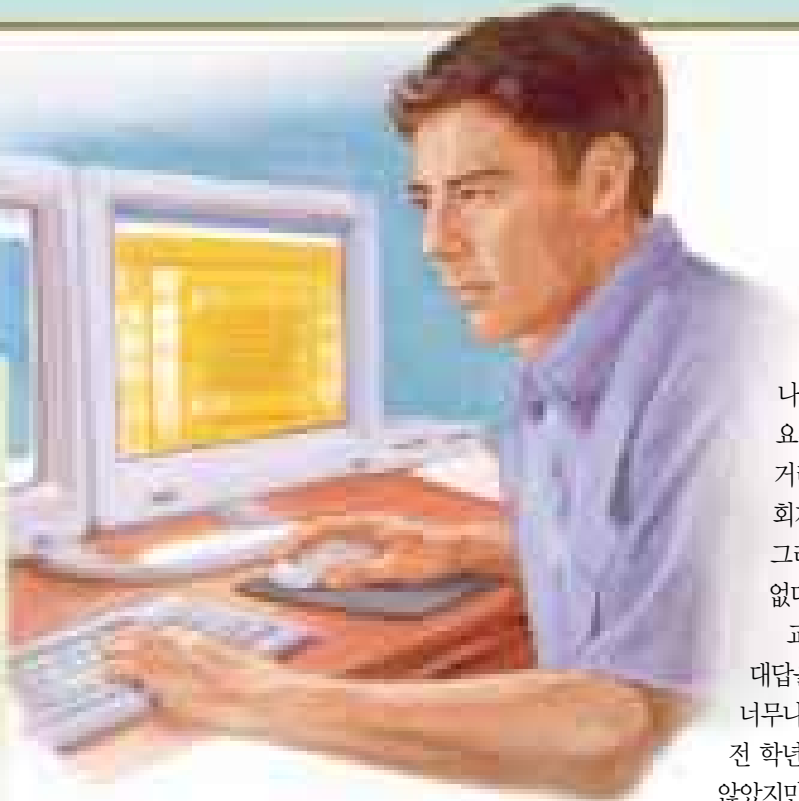
나의 마지막 기회

루이스 멜라

나는 열여덟 살이었을 때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당분간 구주 곁을 떠나는 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조국 칠레에서는 내가 받는 급여로 안락하게 살 수 있었다. 나는 언제나 세속적인 생활을 위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며

그 리고 내가
실패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릴까 봐
두려웠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공으로
등록했다.



열네 살 때 침례를 받으며 맺은 약속을 계속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수년간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그 후 잘나가던 일들이 중단되었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어두워져 가는 것 같았다. 나는 직장을 잃었으며 다른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 그때 나는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로 돌아와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후인 1998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남인 나는 어머니와 동생을 돌보아야 했다. 나는 안일한 생활 방식에 이별을 고하고 때때로 주님은 우리가 그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분은 나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셔서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십일조를 바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다고 믿는다. 나는 교회로 돌아와 나의 성약을 새롭게 한 후에 십일조를 바쳤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분은 인내와 사랑으로써 나를 교회로 되돌아 오게 하셨다.

2001년 연차 대회에서 고든 비헝클리 회장은 영구 교육 기금을 소개하셨다. 나는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회가 필요했지만 내가 그 프로그램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러웠다.

몇 개월 후 성찬식에서 우리 스테이크 회장님께서 이 프로그램에 관해 말씀하셨다. 놀랍게도 나도 지원할 자격이 된다는 것을 알고 마음속으로 “나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야. 이것을 놓칠 수 없어.”라고 생각했다.

그런 후 나는 그 프로그램이 나에게 요구하는 책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실패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릴까 봐 두려웠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지역 종교 교육원 원장님께서 정보를 얻어 지원했다.

나의 과거를 떠올리며 나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비록 내가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지만 그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교회 본부로부터의 긍정적인 대답을 받고 나는 가족들과 너무나 기뻐했다. 승인된 액수는 전 학년을 마치는 데 충분하지 않았지만 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공으로 등록했다. 나는 높은 점수를 받고 남은 학업 기간 동안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그 후, 나는 감사를 표하기 위해 능력에 닿는 한 모든 일을 해 왔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며 교회에서의 책임을 완수했다. 나는 잃어버린 세월을 보충하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알기 위해 종교교육원에 다녔다.

나는 내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나쁜 행위에 대해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미래를 위한 나의 계획 모두가 이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나는 계속해서 가족을 도울 것이며 이제는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기도로 하나가 되어

다니엘 오피쇼

기 초 군사 훈련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특히 영적으로 힘든 시간이었다.

나는 상스러운 언어와 나쁜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기도와 신권 축복이 인내할 힘을 주었지만 나는 개인 기도 이상의 것을 갈망했다. 선교사로 봉사한 나는 동반자와 함께 기도할 때 오는 힘과 단합을 알고 있었다. 약 56명의 항공병에게 분명히 부족한 것은 단합이었다.

3주간의 기본 훈련 동안 우리는 여전히 서로 잘 지내고 한 팀으로 일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나는 원한다면 매일 밤 기도 모임에 참석해 달라고 하급 사관들에게 요청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 아이디어에 동의할 뿐 아니라 지원까지 해 주었다.

첫 모임에 여섯 명이 모였다. 취침 나팔 소리가 나고 불이 꺼지면 우리는 손전등을 사용하여 신약전서에서 우리가 직면한 시련과 연관된 몇 구절을 찾아

읽었다. 그런 후에 기도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간구했다.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그 수는 열다섯 명이 되었다. 어떤 때는 성경 구절을 읽고 또 어떤 때는 물문경을 읽었다. 매일 밤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도할 기회를 주었다.

용기를 내어 우리의 기도 모임에 참석한 한 항공병은 처음에는 듣기만 했다. 기도할 차례가 되면 그냥 넘어가 달라고 했다.

그러나 몇 주가 흐르고 어느 날 저녁에 그는 자신의 가족 문제가 해결되고 훈련 마지막 주 동안에 자신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그는 우리에게 훈련이 끝나면 이 기도 모임이 그리워질 것이며 또한 매일 밤 잠자기 전에 개인 기도를 드리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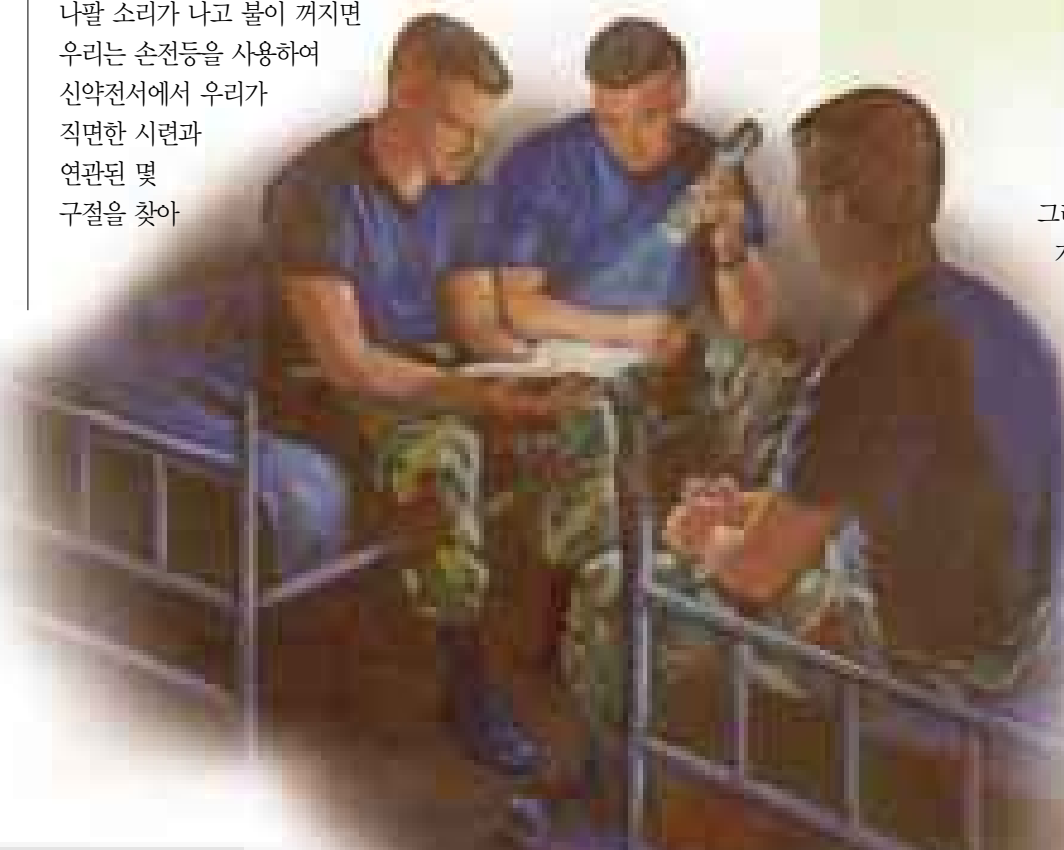
우리 그룹과 함께 기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가족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었다며 감사해 했고 덧붙여 자신이 강화되었으며 기초 훈련을 계속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우리가 배속된 기술 학교로 떠나는 전날 밤, 이 항공병은 기초 훈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에 관해 조금 배웠으나 그분을 믿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경전을 읽고 기도했던 다른 항공병의 모범을 보고 나서 그의 신앙은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 그룹과 함께 드렸던 첫 기도가 자신의 최초의 기도였다고 털어놓았다.

내가 바랐던 대로 우리의 기도 모임은 우리 그룹에 단합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그 모임은 그 이상의 것들, 즉 우리를 개인적으로 강화시켜 주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도록 도와주었다. ■

취침 나팔 소리가 나고 불이 꺼지면

우리는 손전등을 사용하여 신약전서에서 우리가 직면한 시련과 연관된 몇 구절을 찾아 읽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감

저는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들이 주님께에서 받은 영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리아호나*는 간증하고, 의견을 변화시키며 사람들을, 심지어 교회 회원들까지도

워크먼 장로님(2006년 7월호 참조)의 말씀은 제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하는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인켈로레 펜슨, 독일

놀라운 비유

저는 포르투갈어로 번역된 *리아호나*를 읽을 수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리아호나*는 제게 항상 특별한 메시지를 줍니다. 특히 2006년 7월호에서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장로님이 전하신 “독수리 날개 위에”라는 제목의 기사가 매우

감명깊었습니다. 저는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2004년 여름에 저는 스웬슨, 버논, 그레고리 장로와 선교사 토론을 했고 마침내 2006년 8월 28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2006년 9월호 *리아호나*에서 저는 라이언 더블류 존스가 쓴 “늦은 수확”이란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는 저를 침례와 확인으로 이끌어준 작은 행동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니콜라이 펜치코프, 러시아

정숙함에 대한 영감

2006년 6월호에 나왔던 “정숙함은 중요하다”란 기사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제 마음에 꼭 들었던 그 기사는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졸업이 다가오자 한 가지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무도회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쇼핑을 하러 갔지만 무도회라는 상황과 정숙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적절한 옷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그날을 다 보냈으며 심지어 가지 말까, 또는 표준은 잠시 접어두고 쇼핑할 때 보았던 드레스를 입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때 “정숙함은 중요하다”란 기사를 읽게 되었고 제 표준을 낮추어서는 안 되며 성전인 저의 몸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저의 소망과 일치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앞에서 입어도 좋을 아름다운 옷을 입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어머니께서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담아 손수 만들어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저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되기 위해 절대로 저의 표준을 낮추지 않을 것입니다.

스테파니 매그너 탈라베이라, 멕시코

개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리아호나*를 읽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리아호나*를 읽을 때, 저는 영을 강하게 느끼며 그 영은 *리아호나* 기사들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이발도 고메스 알메이더, 브라질



공기 역학으로 복음 원리를 비유한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성신을 ‘날개 아래 부는 바람’으로 묘사한 것이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루시마라 모레스, 브라질

리아호나 기사를 통해 힘을 받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던 어느 날,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필사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리아호나*를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읽는 것이 힘들었지만 잠시 후, 저는 영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아호나*의 기사들은 저의 신앙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특별히 에이치 로스

개종으로 이끈 작은 행동

2002년 12월 1일에 저는 서점에서 물몬경을 한 권 샀습니다. 구원의 계획에 대한 소책자가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소책자에는 전화 번호와 함께 “버지 자매와 소렌슨 자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 7월에 저는 이

친구들



선지자 따라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



힝클리 회장이 자신의 부모님께서 살아 계신 선지자의 권고를 따랐을 때 일어났던 일을 회상하신다.

19 15년에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성도들에게 가정의 밤을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제 부친은 어머니의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응접실을 따뜻하게 데워서 그곳에서 교회 회장이 권고하신 대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저와 제 형제 자매들은 가정의 밤을 하는 것이 서툴렀습니다. 함께 놀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지만 우리 중 한 사람만 앞에 나가서 가족들 앞에서 독창을 하는 일은 마치 부엌 가스렌지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려 놓고 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발표에 대해 웃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래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성경과 물문경 이야기를 읽어 주시는 동안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추억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저희 가족의 그 집 응접실에서 열렸던 작은 모임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자랐습니다. 작은 선행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싹텄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부모님께서 교회 회장의 권고를 따랐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

1993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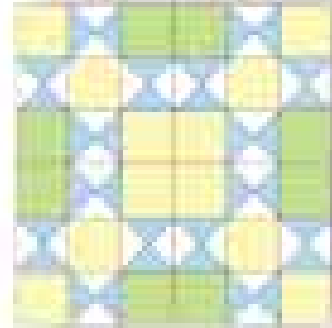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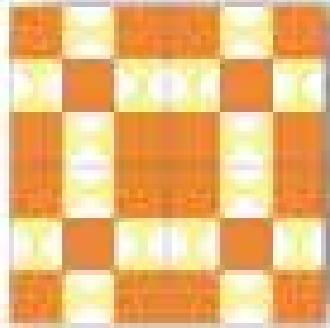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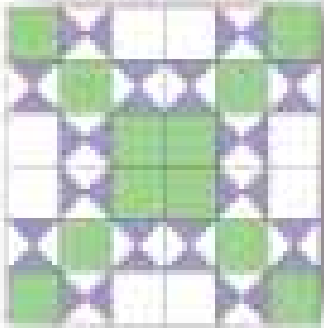
생각해 볼 점

1. 힝클리 가족은 왜 가정의 밤을 시작했는가?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이 시작해야 할 것이 있는가?
2. 여러분은 자신이 서투른 것에 대해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힝클리 회장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3. 힝클리 가족이 선지자의 권고를 따랐기 때문에 받은 축복은 어떤 것이었는가? 여러분의 가족이 오늘날 선지자를 따랐기 때문에 받은 축복에는 무엇이 있는가?
4. 이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 또 다른 것을 찾을 수 있는가? 찾았다면 가족에게 이야기하여 가족들이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



신앙 개조 1:1		교성 42:17		제3니파이 28:11
	누가복음 3:22		니파이전서 12:7	
제4니파이 1:1		모로나이서 6:9		모로나이서 10:4~5
앨마서 5:45~46			로마서 15:13	사도행전 1:2
	요한복음 14:26		니파이후서 31:17	
교성 8:2				교성 20:26~27

주: 리아호나에서 책장을 뜯어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인쇄한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Languages"를 클릭한다.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귀 기울임

“이는 보라, 보혜사는 모든 것을 알려 아버지와 아들들
증거하심이니라”(교리와 성약 42:17)

엘리자베스 리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신발끈을 묶을 줄 알고 자기 이름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아버지, 곧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말씀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우리에게 지상의
부모님과 하늘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신발끈 묶는 것을 배울 때
지상의 부모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이
질문하면 답을 찾기 위해 사전이나 과학책, 경전을 펼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스러운 것에 대한 간증을 얻기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도움에
대답하기 위해 대개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인 성신을
사용하십니다.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들 증거합니다. 성신은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성신은 조셉 스미스가 복음을
회복했고, 지금 우리에게 선지자가 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몰몬경에서 모로나이는 성신의 권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의
참됨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모로나이서 10:5 참조)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면 여러분은 간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은 성신에 귀
기울일 때 커질 것입니다.

활동

성신은 여러분이 담요나 누비 이불을 덮고 있을 때처럼
여러분의 영에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줍니다. 누비 이불에
있는 성구 참조를 찾아서 성신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 봅시다.
경전에 보혜사, 성령, 성신이라는 낱말이 나오면 밑줄을
긋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비 이불 조각에 색칠합니다. 성신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성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 신앙이 커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그림을
침대 가까운 곳에 걸어 둔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앨마서 5장 45절에서 46절까지 집중해서 읽고 앨마가
어떻게 간증을 얻었는지 살펴본다. 앨마가 성신의 권능을 통해
간증을 얻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어린이들이 교리와 성약 42편 17절을 암기하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성구를 찾아보고 신회 구성원들의 이름을 말하게
한다. “보혜사”란 성신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설명한다. 초등회를
세 그룹으로 나눈다. 한 그룹은 일어서서 “보혜사”라 말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아버지”라 말하게 하며 마지막 그룹은 “아들”이라
말하게 한다. 매번 몇 마디 말을 보태면서 반복한다. 노래를
통해서 간증을 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어린이들이 간증에
대한 노래를 부르게 한다.

2. 초등회 어린이들 앞에서 큰 카드 앞면에 초대장이라고 쓴다.
초대장을 받고 싶은 어린이는 손을 들라고 말한다. 카드를 펼쳐서
다음 메시지를 보여 준다. “내가 ... 할 때 성신의 속삭임을
초대해요.”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신의 속삭임을 초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다. 카드 안쪽에 기도, 경전 공부,
계명 지키기, 살아 계신 선지자를 따름과 같은 제언들을 적는다.
각 어린이에게 카드를 한 장씩 주고 초대장을 접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카드 앞면에 “내가 ... 할 때 성신의 속삭임을
초대해요.”라는 말을 받아 쓰게 한 다음, 여러분이 얘기한 것들과
어린이들 스스로 생각한 제언들을 카드 안쪽에 적게 한다. ●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생애에서
지도자가 됨

스펜서는 어느 날 또래 소년들이 밭에서 수박을 훔치고 멜론을 짓이겨 못먹게 만들어 놓고 도망쳐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펜서,
너도 해 봐.

그건 재미있는 게
아니야. 이진 나쁜 짓이야.

왜 이런 짓을 하니? 태처
지역내의 어떤 농부에게라도
부탁하면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많은 멜론을 줄 텐데.

난 빠질래.

스펜서가 집사였을 때 그의 임무 중 하나는
금식 헌물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종 과일과 밀가루, 채소로 헌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스펜서의 아버지는
스펜서가 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말과 마차를
빌려 주었고 스펜서는 이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소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해야 할
일이 있어.

나 혼자라도
해야겠어.

스펜서는 나중에 집사 정원회의
서기가 되었고 그 후엔 회장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어느 날, 스펜서가 주일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주일 학교 회장으로 봉사하는 형제님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스펜서, 내가 주일 학교 반을 가르치면 좋겠어.

제가요? 하지만 전 겨우 열네 살인데요.

주님의 도움에 의지하면 돼. 넌 잘할 거야.



고등학교에서 스펜서는 반장으로 뽑혔습니다. 어느 날 스펜서와 친구 몇 명은 산으로 현장 학습을 가기 위해 낡은 마차 한 대를 빌렸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그 마차로 가기엔 무리였습니다.

뭐가 잘못 되었어?

마차 스프링이 부러졌어.



다음 날 스펜서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스프링 값을 물어줘야 해. 나 혼자서라도 물어 줄 거야.

스펜서, 내가 내줬다면 나도 낼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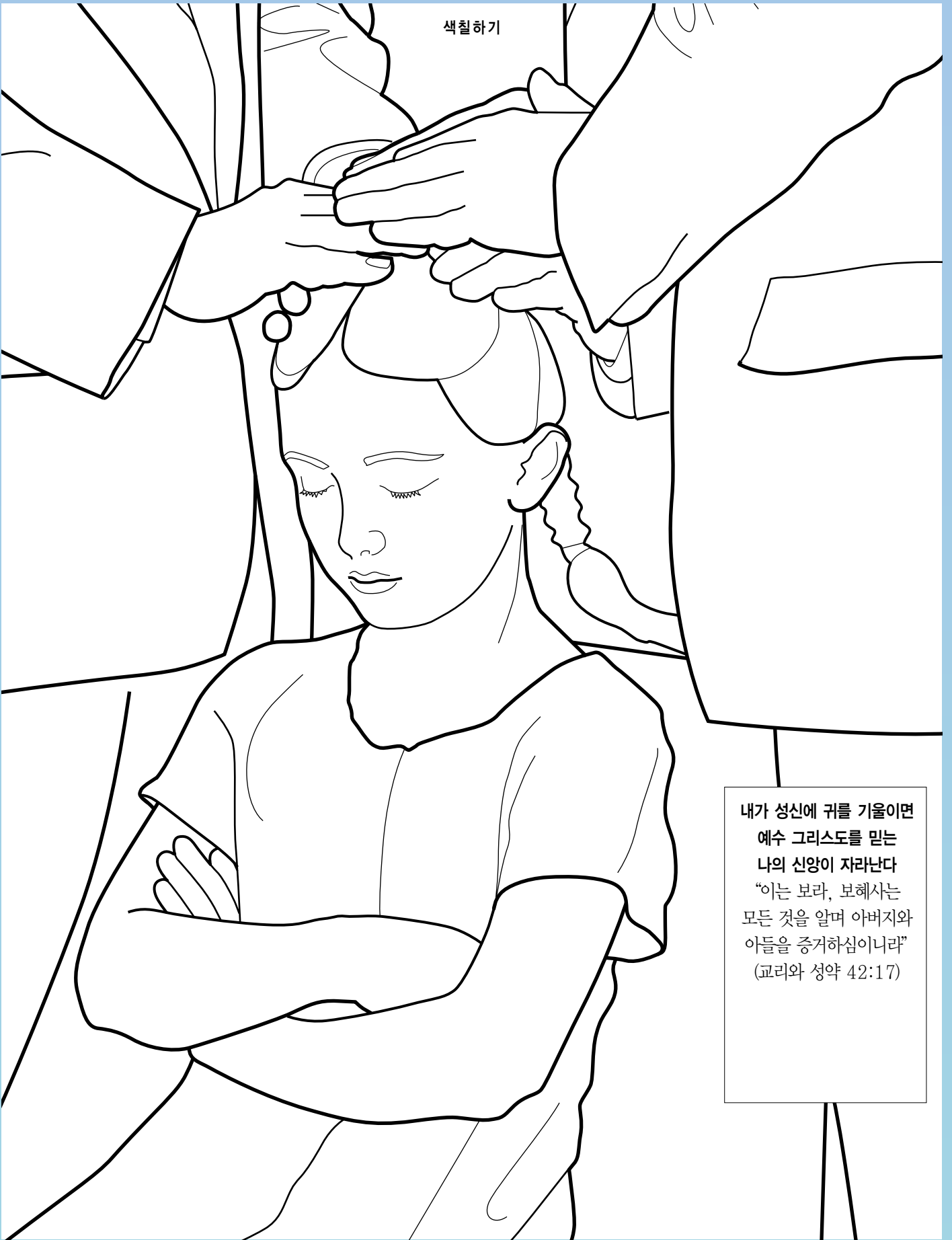
나도 내야 되겠는데.



스펜서가 정직하고 순종적이며 고결함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지도자와 본보기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스펜서가 청소년일 때 이러한 자질들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선지자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복합하기



내가 성신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신앙이 자라난다
“이는 보라, 보혜사는
모든 것을 알며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심이니라”
(교리와 성약 42:17)

성찬을 들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 우리는 구주께서 전세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여호와로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적과 가르침, 병고침, 그분의 도움과 동정심, 그리고 그분의 변하지 않는 친절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 언젠가 우리는 그분이 받으셨던 불친절한 대우와 거절, 그분이

견뎌내야 했던 불공평을 왜 기억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 우리는 구주의 엄숙한 사명과 더불어 그분은 모든 생활의 순간순간에서 기쁨을 찾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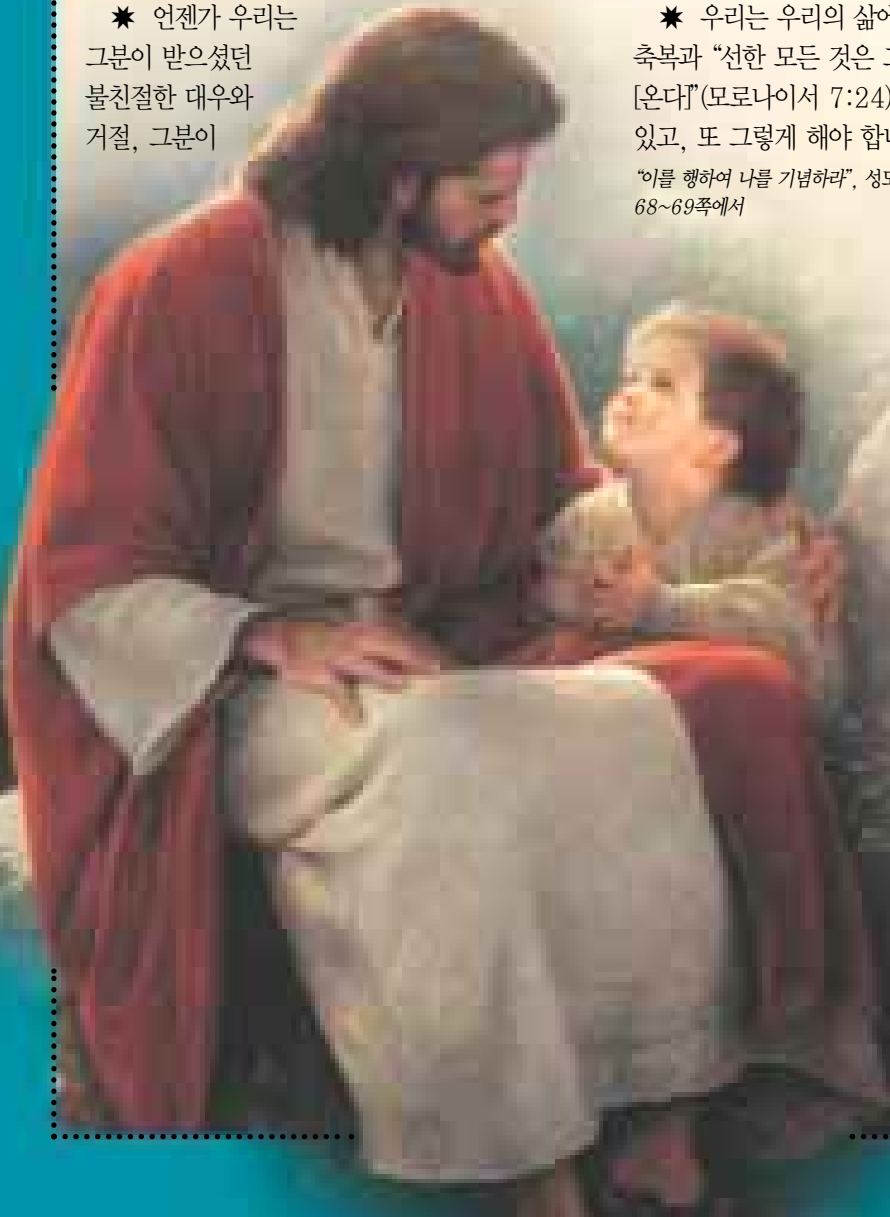
✱ 우리는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놀라운 축복과 “선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모로나이서 7:24)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68~69쪽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이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해 주신다.

그분의 빛 속에서, 그레그 울슨:
성찬 사진: 매튜 라이어



경고의 음성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이사야 52:11)

테리 리드
실화에 근거함

잔 디 깎는 기계의 받침 주머니(깎은 잔디를 모으는 통)를 끌면서 대문을 지나 뒷골목으로 들어선 태드의 얼굴에 구슬같은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태드는 이 더운 토요일에 시원한 물 한 잔만 마시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잘라낸 풀을 버리려고 쓰레기통을 연 태드는 바닥에 깔려 있는 잡지를 보았습니다.

잡지를 줍기 위해 통 안에 손을 뻗었을 때 태드의 팔이 뜨거운 쓰레기통 가장자리를 스쳤습니다. 아얏! 태드는 꺼내든 잡지를 보았습니다. 표지에 정숙하지 못한 옷을 입은 여인이 웃고 있었습니다.

태드는 이런 종류의 사진이 실린 잡지에 대해 아버지가 경고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누군가 뒷골목을 지나면서 쓰레기통에 그 잡지를 버린 게 틀림없었습니다.

“태드야, 뭐 좀 마실래?” 어머니가 뒤쪽 현관에서 부르셨습니다.

태드의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렸습니다. 태드는 잡지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금방 갈게요, 엄마.” 태드는 뒤를 향해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잡지를 말아 바지에 쑤셔 넣고는 셔츠를 내려 잡지를 숨겼습니다. 그는 잘라낸 풀을 버리고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레모네이드 한 잔을 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태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잔디를 깎아줘서 고마워. 어서 들어오렴. 더위에

얼굴이 빨갱게 달아올랐구나.” 라고 말씀하시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태드는 필시 자기 얼굴이 빨갱게 된 것은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드가 빈 잔을 부엌에 갖다 두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들어오셨습니다. 태드는 움찔했습니다.

아버지는 “태드야! 정원 일은 다 끝냈니?”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럼요.”

아버지는 “지금 차를 손보려고 하는데 네가 도와주면 좋겠구나, 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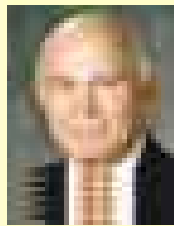
“좋아요, 금방 갈게요.” 태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맙다.”라고 하시며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휴! 큰일날 뻔 했네.” 태드는 황급히 침실로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잡지를 꺼냈습니다. 잡지를 숨길 곳을 찾는 태드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드는 동생 알렉스와 같은 방에서 지냈는데, 태드는 동생이 잡지를 발견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태드는 벽장 쪽으로 의자를 당겼습니다. 의자 위에 올라가 벽장의 제일 위쪽 선반을 살펴보면 태드는 망원경 받치는 데 쓰는 빈 마분지 통을 발견했습니다. 태드는 그 통 속에 잡지를 슬그머니 넣고 선반 뒤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몰래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일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태드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태드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고 아버지를 돕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드는 그날 내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잡지에 대해서는





“성신은 우리가 속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항상 해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달린 에이치 욱스 장로, “속지 마십시오”,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46쪽.

잊어야 했습니다. 그는 실망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갈 준비를 하면서 태드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태드는 우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까? 왜 있던 곳에 버리지 못했을까?”

그날 초등학교 공과반에서는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과 소년들이 신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태드는 집으로 오는 길에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태드는 월요일에 학교에 다녀와서 잡지를 태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태드는 벌써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월요일, 학교에서 돌아온 태드는 얼른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빨리 끝낼수록 좋아!” 그러나 모퉁이를 돌다가 마루에 있는 책 더미에 걸려 넘어질 뻔 했습니다. 방금 칠한 듯한 페인트 냄새가 강하게 풍겼습니다.

자기 방을 살짝 들여다 본 태드는 침대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페인트 용품들이 마루 위에 깔린 천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태드는 어머니가 그 저속한 잡지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드의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태드는 “제 방에서 무얼 하고 계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페인트 칠을 시작하려는데 벽장부터 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태드에게 옆에 앉으라는 시늉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태드를 안고서는 잠시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신께서 네가 벽장 속에 숨긴 것을 내가 찾아내기를 원하셨나 봐.”

태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태드는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두려웠습니다. 태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잡지 어디서 났니?” 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물으셨습니다.

“뒷골목의 쓰레기통에 들어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예요.” 태드가 말했습니다.

“잡지를 보았니?”

“아뇨,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요일에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오늘 학교에 다녀 와서 태우려고 결심했어요.”

“어머, 태드야,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구나!” 어머니는

태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난 오늘 온 종일 너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를 걱정하셨어. 그분은 네가 외설물을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단다. 왜냐하면 그것은 네 마음에 나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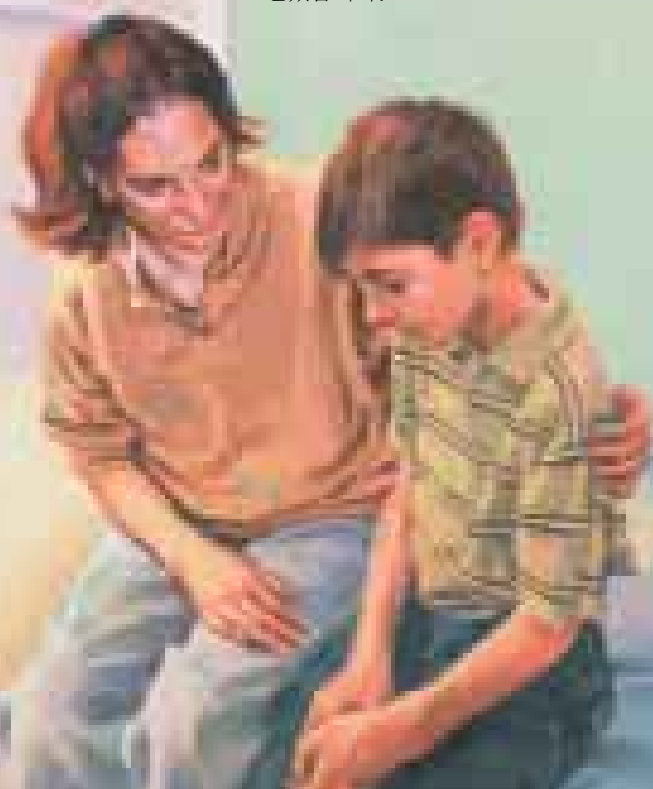
“죄송해요, 엄마.” 태드는 창피했다.

“태드야, 네가 뉘우치고 있다는 걸 엄마는 알고 있어. 엄마는 온종일 놀라운 성신의 은사와 그의 경고의 음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단다.”

태드는 어머니께서 그 음성을 들으신 것이 기뻐했습니다. 태드는 다음 번엔 자신도 그 음성을 들으리라 결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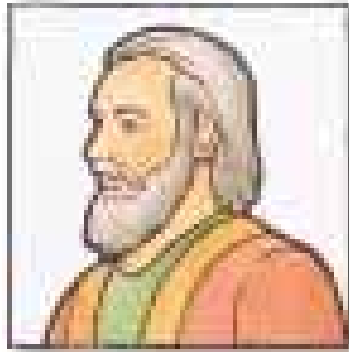
그날 밤, 태드가 침대 곁에 무릎 꿇었을 때에도 여전히 페인트 냄새가 풍겼습니다. 태드는 발로 찬 자국과 얼룩, 지문들이 지워진 벽장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그 저속한 잡지는 주말 동안만 그의

벽장 속에 있었지만 그 이들은 태드의 생에서 너무나 길고 불쾌한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태드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일 먼저 감사드려야 할 것은 어머니에 대해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





1. 모로나이 대장



2. 베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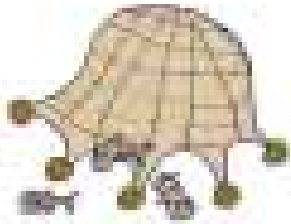


3. 조셉 스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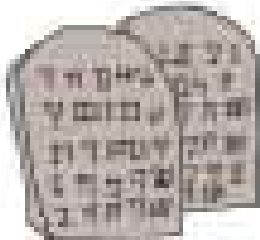
ㄱ. 리아호나

(니파이전서 16:10; 엘마서 3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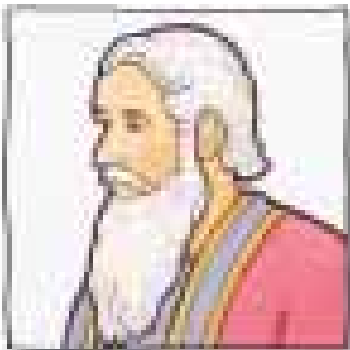
ㄷ. 그물

(마태복음 4:18~19)



ㄹ. 십계명

(출애굽기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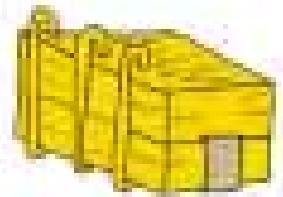


5. 리하이

경전 속의 영웅들

애리 반 더 그래프

각 경전 속의 영웅들을 오른쪽에 있는 것과 연결시킨다.
도움이 필요하면 경전을 찾아 본다.



ㄴ. 금판

(조셉 스미스-역사 1:51~54,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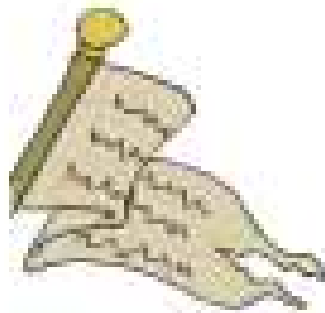


4. 다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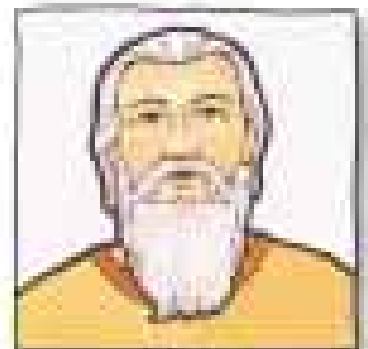


ㅁ. 물매

(사무엘상 17)



ㅂ. 자유의 기치
(엘마서 46:11~13)



6. 모세



줄넘기와 일지 쓰기

칠레 산티아고의 니콜 안투네즈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니콜 안투네즈는 줄넘기를 좋아한다. 그녀는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흔들면서 제자리에서 뛰거나 짱충짱충 뛰면서 나아가거나 심지어 줄넘기를 하면서 인도를 내달리기도 한다.

얼마 전에 니콜은 줄넘기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익혔다. 그것은 니콜이 여러 날 동안 노력했던 것이었기에 이 기술에 익숙해지자 니콜은 너무 기뻐서 바로 이 일을 일지에 적었다. 니콜은 줄넘기보다 일지 쓰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왜 일지를 쓰는가?

“니콜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든 적어요.” 어머니는 여덟 살짜리 니콜이 밝은 색 표지의 작은 일지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 것을 어깨 너머로 살짝 들여다 보며 그렇게 말씀하셨다. 니콜이 재빨리 일지를 덮으며 얼굴을 찡그리자 어머니는 놀리듯이 웃으신다.

니콜은 자기 일지를 많은 사람이 보게 하지는 않는다. “제가 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읽게 해요.” 교회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며 줄넘기 친구인 클라우디아조차도 니콜의 일지를 읽은 적이 없다.

니콜이 적고 있는 일지는 왜 그렇게 특별할까?

니콜은 어제 일지에 수영장 파티에 간 것을 적었다고 한다. 오늘은 교회에 간 일을 적을 것이라고 한다. 니콜은 “나는 리아호나 잡지에서 온 어떤 사람과 이야기 했다.”며 덧붙인다.

아마도 니콜은 그것도 일지에 적을 것이다.

니콜의 일지는 니콜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니콜은 “제가 나이를 더 먹어도 좋은 것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예전 일들을 종종 잊어버리듯이 기억이 희미해질 때 일지를 읽으면서 자신에 대해 잊어버렸던 일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일지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그것만이 아니다.

나만의 보물

니콜의 어머니인 이고르 자매는 니콜이 일지 쓰는 습관을 들이도록 도와주셨다. 이고르 자매도 어렸을 때 일지를 적었다. 불행히도 그녀는 산티아고로 이사하고 결혼하면서 일지를 잃어버렸다.

이고르 자매는 “일지를 잃어버리고 너무 슬펐어요. 일지는 제 삶이었고 제게 일어났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죠. 돈으로

사진 촬영: 아담 시 올슨



니콜은 일지에 무엇에 관해 기록하는가? 여덟 살짜리도 할 이야기가 많을 수 있다.



칠레 산티아고

니콜 아투네즈는 어디서 일지를 기록하는가? 칠레 산티아고의 대도시에 있는 그녀의 조그마한 집 바깥에서.

지구본: Mountain High Maps, © 1993 Digital Wisdom, Inc.



환산할 수 없는 저만의 보물이었어요.”라고 말한다.

니콜의 오빠인 보리스가 태어나자 이고르 자매는 일지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첫째 보리스, 둘째 니콜이 태어났을 때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는지 일지에 기록했다.

보리스와 니콜은 어머니의 일지 읽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을 읽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알 수 있어요.”라고 니콜은 말한다. 니콜은 자기 자녀들도 이렇게 자신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무엇을 적을까

니콜은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학교 과제로 일지를 쓰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매일 그렇게 해 왔다. 니콜은 말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언제든 일지에 적을 것이다. 적을 것이 있을 때는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다.

그러나 어디에서 쓰느냐는 중요하다.

니콜이 일지 쓰는 장소로 가장 좋아하는 곳은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 바깥이다. 바깥에서는 무엇을 적을지 생각할 수 있고 사람들이 어깨 너머로 엿보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니콜이 쓰는 것은 날마다

다르다. 니콜이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가 본 곳에 대해 적기도 하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특별한 친구에 대해서도 적는다. 그리고 새로운 줄넘기 기술과 같이 자기가 익힌 것에 대해서도 적는다.

니콜은 행복할 때와 슬플 때도 적는다.

“저는 특히 제게 일어났던 재미난 일들을 읽으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좋아해요.”라고 말한다.

최근에 여덟 살이 되어 침례와 확인을 받은 니콜은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일에 관해서도 기록했다. “전 침례를 받고 확인 받은 후에 성신을 느꼈던 것을 적어 두었어요” 나중에 힘든 시기가 왔을 때 자신의 간증을 굳건하게 했던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니콜은 알고 있다.

이미 니콜은 과거로 돌아가 자신이 기록한 것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제가 읽기 좋아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라고 살포시 미소 짓는다. ●

지금 바로 적는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님이 1973년에 교회 회장으로 부름 받았을 때, 그의 일지는 33개의 바인더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교회 회원들에게 일지를 적도록 권유하셨고 회원들이 일지를 쓰는 것은 구주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쳤다.

다음은 무엇을 적을 것인가에 관한 김볼 회장님의 제언이다.

- 우정
- 간증
- 성취
- 받은 축복

- 자신이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
- 자신을 기쁘게 한 일들
- 자신에 대해 마음에 드는 것
- 성신과 함께한 경험들
- 어려운 과제와 그것을 해결한 방법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일생의 경험에 관해 읽을 때 그들은 우리를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영원한 세상에서 함께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는 이미 잘 아는 사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President Kimball Speaks Out on Personal Journals”, *Ensign*, 1980년 12월호, 61쪽.

